

KMI 전망 시리즈

2005. 10.

2005년 추계 수산 시장 및 가격 전망

정책동향연구실
수 산 팀

□ 집필진

I 장	정 명 생 부연구위원(msjoung@kmi.re.kr)
II 장 1. 연근해 품목	장 흥 석 책임연구원(changhs@kmi.re.kr)
	이 오 책임연구원(ohlee@kmi.re.kr)
2. 수입 품목	최 수 정 연구원(sjchoi@kmi.re.kr)
	이 은 화 연구원(yhli19@kmi.re.kr)
3. 양식 품목	김 봉 태 연구원(btkim@kmi.re.kr)
III 장	수 산 팀(btkim@kmi.re.kr)

□ 일러두기

- 집필진은 수산물의 수급이 계절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상·하반기 수산시황진단'을 '계절별 수산시황진단'으로 개편하였음
- 이 보고서는 2005년 여름의 수산 시황과 2005년 가을의 가격 전망을 다루고 있음
- 각 품목의 전망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 50명을 대상으로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여
 - 2004년 여름 및 2004년 가을과 대비한 소비지가격의 변동 방향과 2005년 여름에 대비한 소비지가격의 변화율을 제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1~7일임
- 이 보고서에서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겨울은 12월~이듬해 2월임

목 차

요 약	i
I. 수산물 가격 및 생산·수출입 동향	1
II. 품목별 동향과 전망	4
1. 연근해 품목	4
1) 갈치	7
2) 고등어	10
3) 멸치	15
4) 오징어	18
2. 수입 품목	22
1) 명태	23
2) 꽁치	27
3) 조기류	30
4) 꽃게	34
3. 양식 품목	38
1) 넙치	40
2) 조피볼락	44
3) 굴	47
4) 김	49
III. 종합평가 및 시사점	52
부록 : 2005년 추계 수산물 가격 전망 조사표	55

표 목차

<표 II-1> 2005년 여름 연근해 어업별 어획 실적	5
<표 II-2> 2005년 여름 주요 연근해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6
<표 II-3> 2005년 여름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실적	22
<표 II-4> 2005년 가을 주요 수입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23
<표 II-5> 2005년 여름 양식어업 생산 실적	38
<표 II-6> 2005년 가을 주요 양식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40

그림 목차

<그림 I-1>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1
<그림 I-2> 어업 생산량 추이	2
<그림 I-3> 수산물 수출입 실적 추이	3
<그림 II-1> 2005년 여름 연근해 어업의 어획 실적	4
<그림 II-2> 갈치의 어획량과 산지가격 추이	7
<그림 II-3> 갈치의 공급원별 공급량 추이	8
<그림 II-4> 국가별 냉동갈치 수입량 추이(6~8월)	9
<그림 II-5> 갈치의 소비지가격 추이	9
<그림 II-6> 고등어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11
<그림 II-7> 신선·냉장 고등어의 수입량 추이	12
<그림 II-8> 냉동 고등어의 수입량 추이	12
<그림 II-9>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의 수출량 추이	13
<그림 II-10>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의 소비지가격 추이	14
<그림 II-11> 멸치의 어획량과 산지가격 추이	15
<그림 II-12> 마른 멸치의 수입량 추이	16
<그림 II-13> 국가별 마른멸치 수입량 및 수입액 (2005년 6~8월)	17
<그림 II-14> 마른 멸치(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17
<그림 II-15> 오징어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19
<그림 II-16> 냉동 오징어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20
<그림 II-17> 신선·냉장(중품) 및 냉동 오징어(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21
<그림 II-18> 신선·냉장 명태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24
<그림 II-19> 냉동 명태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25
<그림 II-20> 수입 신선·냉장 명태 소비지가격 추이	25
<그림 II-21> 냉동 명태의 소비지가격 추이	26
<그림 II-22> 신선·냉장 꽁치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27
<그림 II-23> 냉동 꽁치의 소비지 공급 추이	28
<그림 II-24> 신선·냉장 꽁치 소비지가격 추이	29

<그림 II-25> 냉동 콩치의 소비지가격 추이	29
<그림 II-26> 조기류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31
<그림 II-27> 연근해산 조기류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31
<그림 II-28>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 추이	32
<그림 II-29> 수입 조기류의 소비지가격 추이	33
<그림 II-30> 꽃게의 공급원별 공급량 추이	34
<그림 II-31> 연근해산 꽃게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35
<그림 II-32> 냉동 꽃게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35
<그림 II-33> 활 꽃게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36
<그림 II-34> 활 꽃게의 소비지가격 추이	36
<그림 II-35>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 추이	37
<그림 II-36> 양식 넙치의 생산량과 산지가격 추이	41
<그림 II-37> 넙치의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41
<그림 II-38> 넙치(활어)의 노량진수산시장 거래량 및 가격 추이	42
<그림 II-39> 넙치(활어)의 수출입 추이	43
<그림 II-40> 2005년 6~9월 넙치의 양성물량 추이	44
<그림 II-41> 양식 조피볼락의 생산량과 산지가격 추이	45
<그림 II-42> 조피볼락(활어)의 소비지가격 추이	46
<그림 II-43> 볼락류(활어)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46
<그림 II-44> 굴(상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48
<그림 II-45> 굴의 노량진수산시장 거래량 및 가격 추이	48
<그림 II-46> 굴(신선·냉장, 냉동)의 수출량 추이	49
<그림 II-47> 마른 김(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50
<그림 II-48>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출량 추이	51

요 약

수산물 물가 지난 겨울 이후 지속적 하락세

- 올 여름의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봄에 비해서 1.5% 하락한 115.6으로 지난 겨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04년 여름에 비해서도 0.9% 하락하였음
- 올 여름의 어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봄철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여름에 비해서는 41.2% 증가하였음
- 특히, 패류를 제외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늘어났으며, 고등어를 중심으로 한 어류의 어획량 증가가 현저하였음
- 올 여름의 수산물 교역은 고가품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저가품 수출도 늘어나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대비 확대되었음

여름철 어획량 증가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가격 하락

- 지난 가을부터 어획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고등어는 수산물의 소비지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소비지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컸음
- 또한 갈치, 오징어 등의 어획량도 증가하여 수산물의 가격하락을 주도하였음

냉동명태, 조기, 꽃게는 하락한 반면 냉동 콩치는 올라

- 2005년 여름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 냉동 명태, 조기, 꽃게는 하락한 반면 신선·냉장 명태와 콩치 등은 상승하였음
- 신선·냉장 명태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냉동 명태는 여전히 불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가격이 하락하였음
- 또한 신선·냉장 콩치와 조기는 대폭적인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반면 냉동 콩치는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30% 상승하였음

ii 2005년 추계 수산 현황 및 가격 전망

넙치·조피볼락 하락, 굴·김 상승

- 2005년 여름 넙치와 조피볼락의 소비지가격은 지난 봄과 전년 여름에 비해 모두 하락하였음
 - 넙치는 2005년 들어 공급물량 과다 추세가 계속 이어져 근년 들어 가장 가격이 낮았고
 - 조피볼락은 태풍 ‘매미’ 이후 높은 가격대가 지속되자 다시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소폭 하락하였음
- 2005년 여름 굴은 비수기라 소량이 거래된 가운데 소매가격은 지난 봄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전년 여름에 비해서는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 계절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김은 2005년산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근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지가격이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였음

올 가을 주요 연근해 품목 소비지가격 엇갈린 양상 보일 듯

- 고등어는 올 가을에 접어들면서, 대고등어(500g 이상)의 어획 구성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여름에 비해 소비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의 소비지가격은 지난 여름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비해 가을의 소비지가격은 트롤 어선의 가을 어기로 냉동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신선·냉장은 성어기가 11월까지라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됨
 - 갈치의 산지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어획량 증가로 봄에 비해 약 16% 하락했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 추세는 올 가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멸치는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재고량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 가을 산지가격은 약보합세가 전망됨

올 가을 수입 수산물 가격 강보합세 전망

- 명태와 꽁치는 신선·냉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며 조기도 국산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됨
 - 명태는 가을부터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선·냉장 명태는 1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냉동 명태는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어 여름과 비슷한 것으로 전망됨
 - 꽁치는 계절적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선·냉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나 냉동 꽁치는 올 여름에 예상할 만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국산 조기는 가을 조기의 품질이 대체로 좋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수입 조기는 최근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호가 줄어 대폭적인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활 꽃게는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냉동 꽃게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넙치·조피볼락 하락, 굴 비슷, 김 상승

- 2005년 가을 주요 양식 수산물중 넙치·조피볼락 등 어류는 약세를 보여 5~10% 하락하고, 김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 5% 이내로 오르며, 굴은 전년 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넙치·조피볼락은 공급 여건이 충분한 상황에서 10월 초 불거진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의 영향권에 들어 예년에 비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가을부터 새로이 출하되고 있는 굴은 지난해와 생산량 규모가 비슷하고 수요측면도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김은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와 수출은 안정적인 것으로 관측됨

〈표〉 2005년 가을 주요 수산물의 소비지가격 전망(2005년 여름 대비)

연근해 품목				수입 품목				양식 품목		
갈치	신선 냉장	↓	-20%	명태	신선 냉장	↑	10%	넙치(활어)	↓	-5~- 10%
	냉동	↓	-15%		냉동	▮→	-			
고등어	신선 냉장	↑	20%	꽁치	신선 냉장	↑	10%	조피볼락 (활어)	↓	-5~- 10%
	냉동	▮→	-		냉동	▮→	-			
멸치(건조)		↓	-5%	조기	국산	↑	20%	굴 (신선·냉장)	▮→	-
					수입물	↑	5%			
오징어	신선 냉장	▮→	-	꽃게	냉동	▮→	-	김(건조)	↑	5%
	냉동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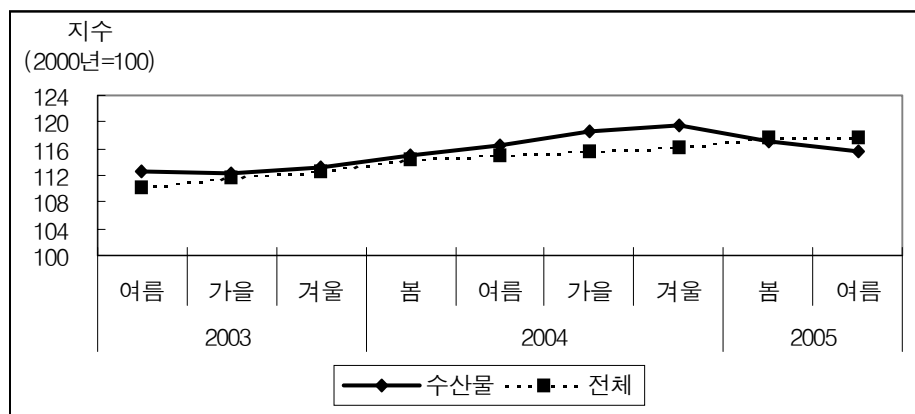
주 : '↑'은 가격상승을 의미하고, '▮→'는 가격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은 가격하락을 의미함

I. 수산물 가격 및 생산·수출입 동향

수산물 소비자 물가 하락세

- 올 여름¹⁾의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봄에 비해서 1.5% 하락한 115.6으로 지난 겨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2004년 여름에 비해서는 0.9% 하락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2.4%의 상승을 보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대조를 보임

〈그림 1-1〉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어업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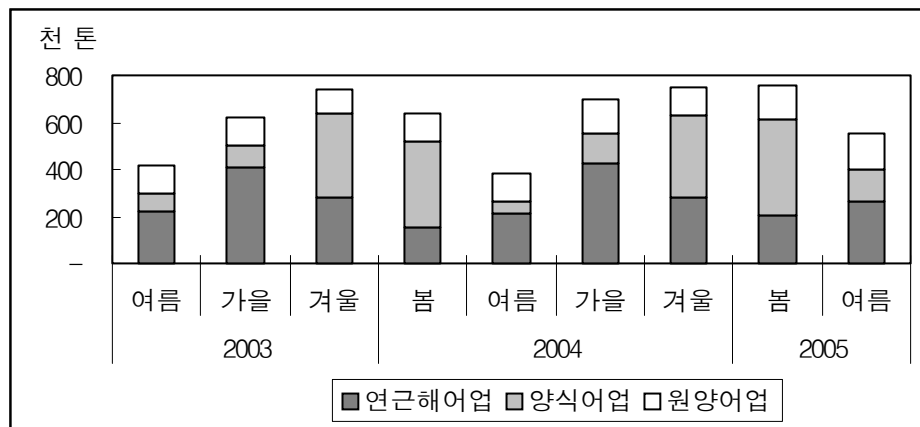
- 여름철 수산물 생산량은 봄철에 비해 27%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여름에 비해서는 41% 증가하였음
 - 여름철 수산물 생산량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봄철에 비해 31%, 지난해 여름에 비해 27% 늘어났으며

1) 겨울은 12월~2월, 봄은 3월~5월, 여름은 6월~8월, 가을은 9월~11월 임.

2 2005년 추계 수산 현황 및 가격 전망

- 양식어업은 주요 패류 및 해조류가 비생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에 비해 132% 정도 늘어났으며, 원양어업도 동기간 대비 25% 어획량이 증가하였음²⁾

〈그림 1-2〉 어업 생산량 추이



주 : 내수면어업은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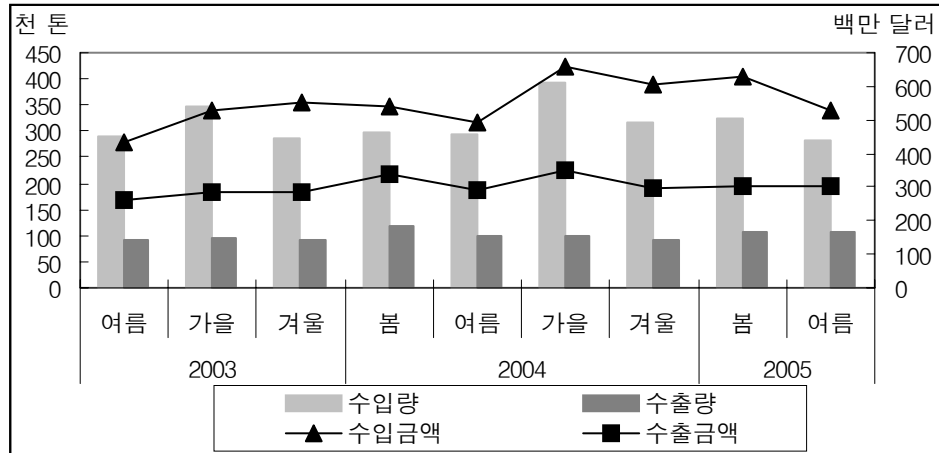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전년 동기대비 확대

- 2005년 여름 수산물 수입량은 2004년 여름에 비해 4%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8% 늘어남
 - 그러나 수산물 수출량은 지난 동기에 비해 6% 늘어났으나 수출액은 같은기간 3% 증가에 그쳤는데
 - 이는 수입은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수출은 고가품보다는 저가품 수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됨
- 주요 수입 품목 가운데 명태와 꽃게는 2004년 여름보다 감소하였으나 꽁치, 조기 등의 수입은 늘었음
 - 이중 명태는 충분한 재고물량과 국내 신선·냉장 명태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됨

2)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의 자세한 생산 동향은 II장에 수록함

〈그림 1-3〉 수산물 수출입 실적 추이



자료 : 수협, 수산물 수출입 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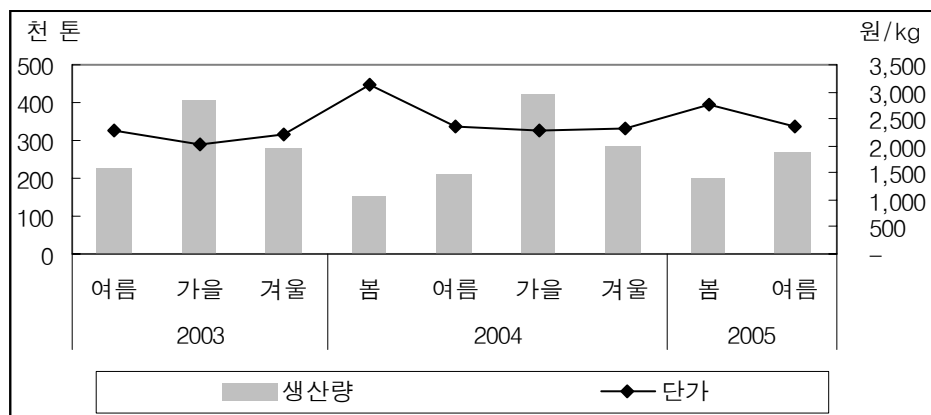
Ⅱ. 품목별 동향과 전망

1. 연근해 품목

연근해 어획량, 작년 동기 대비 27% 늘어

- 올 여름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해 여름에 비해 27% 늘어난 266,723톤이었으며, 올해 봄에 비해서도 32% 늘어났음
- 따라서 산지가격은 올해 봄에 비해 14% 떨어진 2,364/kg으로 거래되었으나, 작년 여름보다는 어획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음

〈그림 Ⅱ-1〉 2005년 여름 연근해 어업의 어획 실적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패류를 제외한 전 어업에서 어획량 늘어

- 2005년 여름의 연근해 어획량 증가는 패류를 제외한 전 어업에서의 어획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류의 어획량이 작년 여름에 비해 올해 여름에는 39% 증가한 190,044톤으로 올해 여름 연근해 어획량의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갑각류 12%, 연체동물 14%, 기타 수생동물 45% 해조류 14%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모두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 패류 어획량은 오히려 작년 여름에 비해 20% 줄어든 16,866톤을 기록하였지만, 어획금액은 보합세를 보였음

〈표 II-1〉 2005년 여름 연근해 어업별 어획 실적

	2004년 여름		2005년 여름		증감률(%)	
	어획량(톤)	어획금액 (억 원)	어획량(톤)	어획금액 (억 원)	물량	금액
전체	209,726	4,927	266,723	6,306	27.2	28.0
어류	136,433	2,841	190,044	4,054	39.3	42.7
갑각류	11,860	438	13,314	503	12.3	14.8
패류	21,057	424	16,866	423	-19.9	-0.2
연체동물	31,748	1,169	36,275	1,187	14.3	1.5
기타 수생동물	1,203	65	1,741	73	44.7	12.3
해조류	7,425	35	8,483	66	14.2	88.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멸치, 고등어, 갈치, 동족, 오징어 등이 어획량 증가 주도

- 올해 여름 연근해 어획량을 주도한 것은 멸치, 고등어, 갈치, 방어류 등으로 작년 여름에 비해 어획량이 각각 26%, 143%, 60%, 394% 늘었음
- 갑각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붉은대게가 작년 여름에 비해 약 4% 줄어들기는 했지만, 갯새우, 꽃새우, 꽃게가 각각 16%, 41%, 83% 늘어나면서 어획량 증가를 주도하였음
- 작년 여름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획량 감소를 보인 패류는 동족, 백합, 맛류가 각각 57%, 48%, 550% 줄면서 패류의 어획량 감소를 주도하였음
- 연체동물 중에는 주꾸미를 제외한 대부분 어획량이 증가했는데, 연체동물 중 가장 어획 비중이 높은 오징어류가 작년 여름에 비해 약 13% 증가하면서 어획량 증가를 주도하였음

6 2005년 추계 수산 현황 및 가격 전망

- 이 밖에 기타 수생동물과 해조류에서는 성게, 우뚝가사리, 청각 등의 어획량 증가가 두드러졌음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가격 어종별 차이 보일 듯

- 2005년 가을 연근해 주요 수산물인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의 소비지가격은 산지의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변동할 것으로 보임
 - 고등어의 경우 신선·냉장과 냉동 모두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여름과 비교해서는 신선·냉장의 경우는 오르고 냉동의 경우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오징어의 경우 작년 가을에 비해서 신선·냉장은 내리고 냉동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여름에 비해서 신선·냉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냉동은 내릴 것으로 전망되었음
 - 갈치의 경우 작년 가을에 비해 신선·냉장과 냉동품 모두 2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멸치는 세멸의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격이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멸의 경우는 지속적인 공급 증가로 인하여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2〉 2005년 여름 주요 연근해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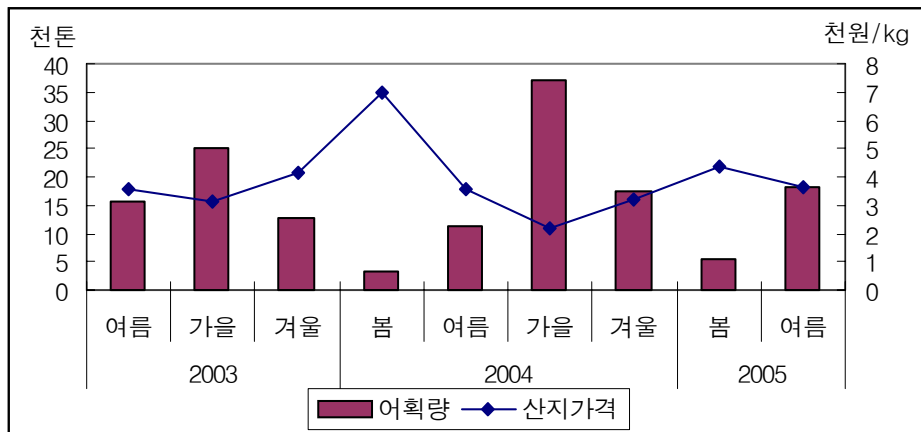
		2004년 가을 대비	2005년 여름 대비	
		변동방향	변동방향	가격 변화율(%)
갈치	신선·냉장	↓↓	↓↓	-20
	냉동	↓↓	↓↓	-15
고등어	신선·냉장	↓↓	↑	20
	냉동	↓↓	↗	-
마른 멸치		↑	↓↓	-5
오징어	신선·냉장	↓↓	↗	-
	냉동	↑	↓↓	-10

1) 갈치

어획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 올 여름 갈치의 산지가격은 봄에 비해 약 16% 하락했으나 작년 여름에 비해 2% 상승했음
- 이는 국내의 어획량이 계절적 요인으로 올 봄 어획량에 비해 222% 급증했기 때문인데 작년 여름과 비교해서도 60% 늘어난 어획량임
- 하지만 이러한 어획량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에 머물렀음
- 이는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한 정부가 8월 말경에 조기 수매를 실시함에 따라 가격하락이 주춤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2〉 갈치의 어획량과 산지가격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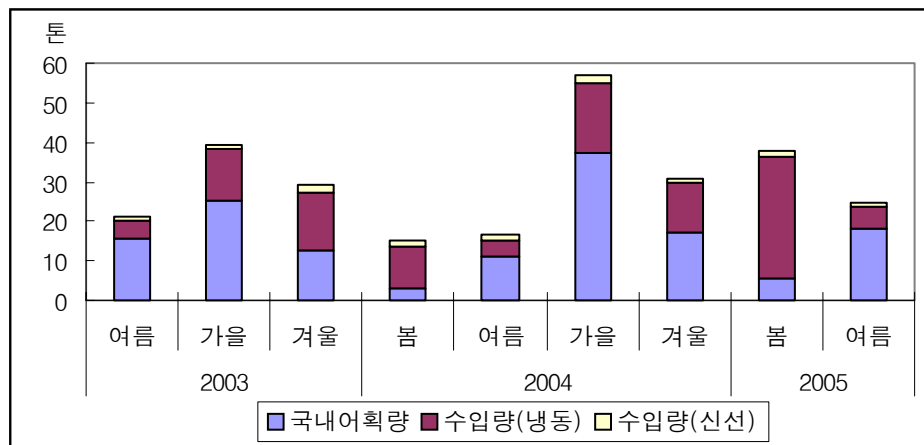
국내 생산량 증가로 냉동갈치 수입량 대폭 감소

-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재고량이 늘어나는 한편 지난 봄에 과다하게 수입된 냉동 갈치가 아직 재고로 남아있어 냉동갈치 수입이 급감하였음

8 2005년 추계 수산 시황 및 가격 전망

- 한편 냉동품의 수입은 올 봄에 비해 82% 감소했으나 작년 여름보다는 37% 증가하였고 냉동품의 재고량은 올 봄보다 12,796톤이 감소한 37,591톤이었음

〈그림 Ⅱ-3〉 갈치의 공급원별 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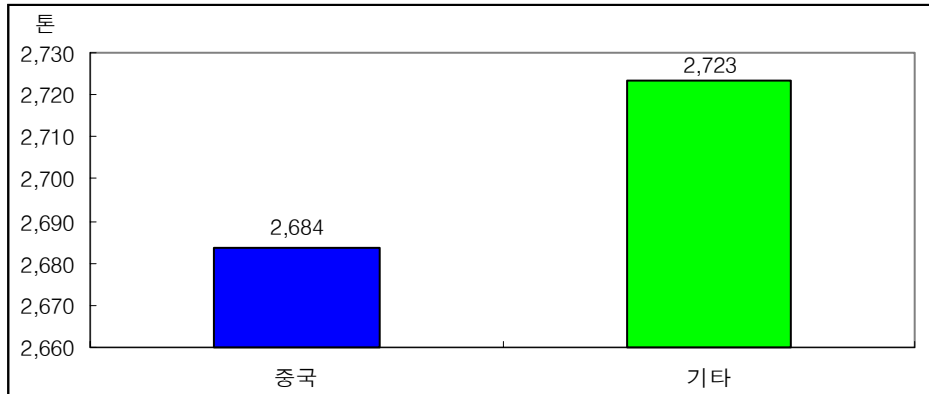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예년과는 다르게 중국 비중 감소

- 나라별 냉동품 수입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며 그 뒤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이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전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의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음
- 전체 냉동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2004년에는 51%이었으나 올 6~8월 사이에는 소폭 감소한 50%를 차지하였음
-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갈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관계로 가을부터 대 중국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4〉 국가별 냉동갈치 수입량 추이(6~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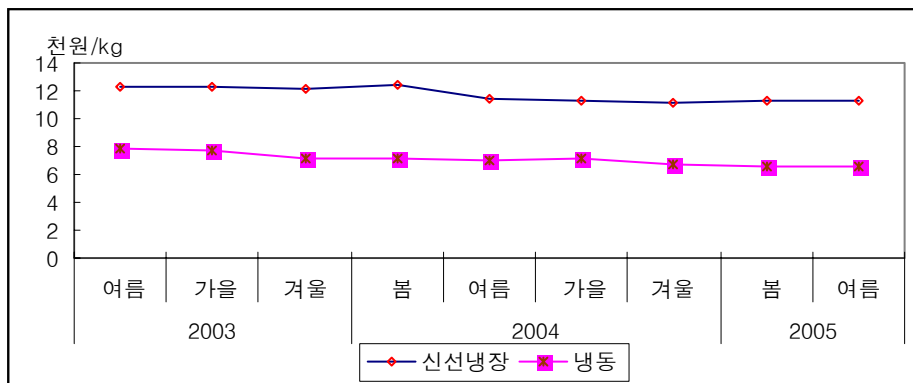
주 : 기타에는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 기네비소 등이 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 가격 별다른 영향 없어

- 올 봄에 비해 신선·냉장 갈치의 소비지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냉동의 경우는 소비지 가격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 신선·냉장 갈치의 경우는 작년 여름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한 반면, 냉동 갈치의 경우는 6%의 가격 하락을 보였음

〈그림 II-5〉 갈치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

올 가을, 신선·냉장, 냉동품 모두 하락 전망

- 중도매인들은 올 가을의 신선·냉장 갈치의 소비지가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올 여름에 비해 대략 15~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았음
 - 12월 초까지 연승이 계속될 예정임에 따라 신선·냉장 갈치의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름에는 어획된 갈치의 크기가 작았던 반면 가을에는 크기가 큰 갈치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됨
 - 올 가을 신선·냉장 갈치의 소비지 가격은 어체의 대형화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에 비해 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올 가을의 냉동 갈치 소비지가격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예상은 올 여름에 비해 12~15% 정도 하락하고, 작년 가을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동중국해에서 생산되는 남방갈치가 과거에는 품질이 좋았으나 근래에는 36도 이남에서 많이 잡히는 관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올 여름 냉동 갈치의 재고량이 계속해서 감소한³⁾ 까닭에 신규 냉동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올 가을 냉동 갈치의 가격하락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 올 가을 냉동 갈치 소비지 가격은 여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하고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대략 15~20% 정도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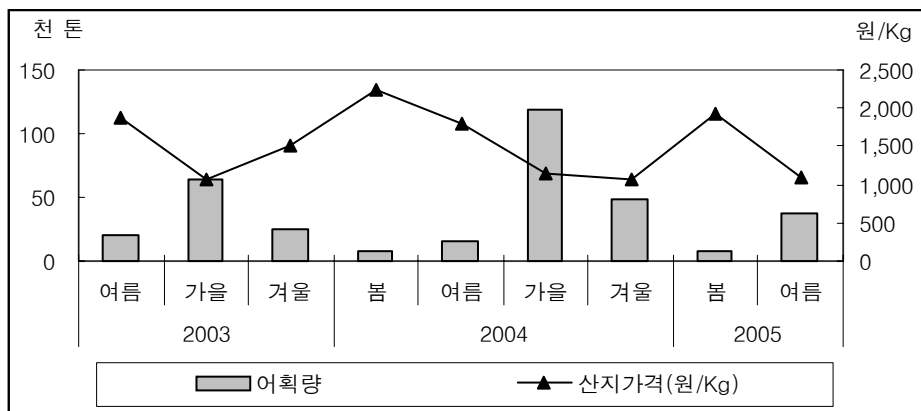
올 여름 고등어 산지가격, 어획량 증가로 하락세

- 올 여름의 고등어 산지가격은 kg당 1,088원으로 작년 여름과 올 봄에 비해 각각 40%와 43% 내렸는데, 이는 올 여름 고등어 어획량이 3만 7,501톤으로 작년 여름과 올 봄에 비해 각각 143%와 354% 증가했기 때문임

3)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수산물 재고동향(2005년 01.31 ~ 08. 31)'

- 이에 대해 국립수산물과학원은 고등어 어장인 제주도 주변 수역의 수온이 고등어가 밀집하기에 알맞았고, 지난 해 고등어의 먹이 생물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치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음⁴⁾
- 또한 고등어 풍어의 원인 중의 하나는 망치고등어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 망치고등어는 일반 고등어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대신에 육질이 약하고 지방 함유량이 낮아 가격이 낮은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어획량 증가뿐만 아니라 저가의 어종 구성이 늘어남에 따라 고등어의 산지가격 하락이 가중된 것임

〈그림 II-6〉 고등어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 수입 모두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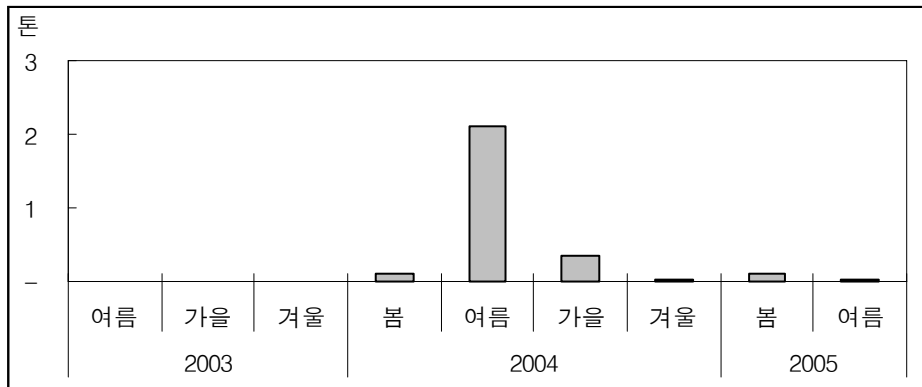
- 올해 여름의 고등어 수입량은 총 3,109톤으로 작년 여름의 14,144톤에 비해 78%, 올해 봄의 7,320톤에 비해 58% 줄었음
- 그 내역을 보더라도, 신선·냉장 고등어의 경우 올 여름의 수입량이 24톤으로 작년 여름 및 올해 봄에 비해 각각 99%와 79% 줄었음

4) 제주도 주변의 50m 수층에는 고등어가 밀집하기에 알맞은 수온층(수온약층)이 15~20℃ 사이에서 조밀하게 형성됨에 따라 회유하는 고등어의 대량밀집으로 7월부터 형성되던 고등어 어장의 어기가 1개월 정도 빨라짐(국립수산물과학원 보도자료)

12 2005년 추계 수산 시황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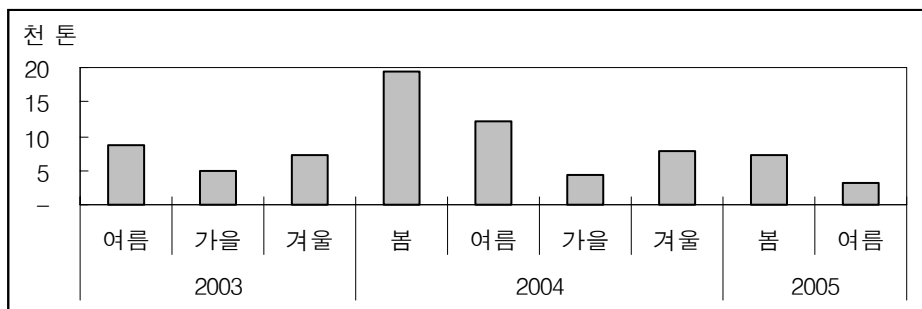
- 냉동 고등어는 올해 여름에 3,085톤 수입되었는데 작년 여름과 올 봄에 비해 각각 74%와 57% 줄었음
- 이는 지난해 가을 이후 고등어의 어획량이 급속히 늘어나 재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올해 여름 연근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임

〈그림 II-7〉 신선·냉장 고등어의 수입량 추이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II-8〉 냉동 고등어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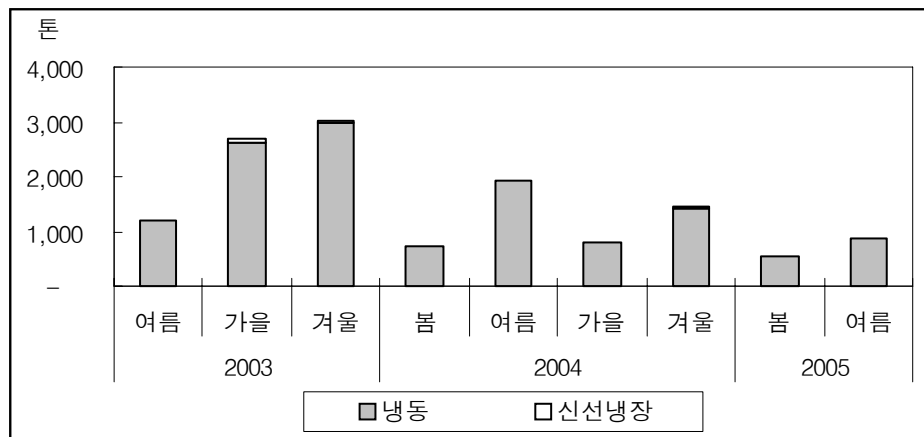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줄어

- 고등어 수출의 대부분은 냉동 고등어로 올해 여름 수출량은 작년 여름에 비해 55% 줄어든 864톤이었음

- 연근해 고등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고등어 어장이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는 일본 및 중국의 고등어 어획량도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II-9〉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의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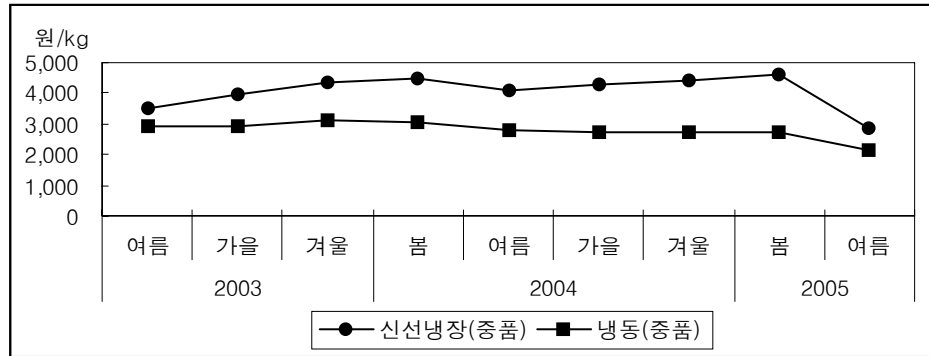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신선·냉장과 냉동 고등어의 소비지가격 크게 떨어져

- 신선·냉장 고등어(중품)의 2005년 여름 소비지가격은 봄에 비해서 약 38%,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30% 떨어진 2,865원/kg이었음
 - 수입량이 줄어든 것은 연근해 어획량 증가와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냉동 고등어(중품)의 소비지가격도 작년 여름과 올 봄에 비해 각각 25%와 23% 하락한 2,114원/kg이었음
 - 신선·냉장에 비해 소비 선호도가 떨어지는 냉동 고등어(중품)는 지난 가을과 겨울 성어기에 대량으로 비축되어 있었는데
 - 연근해 신선·냉장 고등어의 공급량이 늘자 보관료,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으로 다량 방출되었기 때문임

〈그림 II-10〉 신선·냉장 및 냉동 고등어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올 가을 신선·냉장 고등어 소비지가격, 오를 것으로 보여

- 올 여름의 신선·냉장 고등어 소비지가격은 거의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오를 것으로 보임
 - 우선 고등어의 어체가 300~350g인 중고등어에서 500g 이상의 대고등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품 가치가 올랐다는 것이 올해 가을 고등어 소비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
 - 또한 유통업자들이 작년 가을 이후부터 시작된 고등어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반고등어, 수출 등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 정부 또한 북한으로 고등어를 공급하고, 정부 비축을 서두르는 등 수요 확대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고등어 가격 하락을 멈추는 요인이었음
 - 따라서 현재의 신선·냉장 고등어의 소비지가격이 바닥세를 달리고 있다는 업계의 설명을 근거로 보면, 소비지가격은 올해 여름에 비해 약 2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올해 여름보다 20%가 오르더라도 작년 가을과 비교해서는 20%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예년 수준을 회복 중인 것으로 보임

올 가을 냉동 고등어 소비지가격, 여름 수준 유지할 듯

- 냉동 고등어의 소비지가격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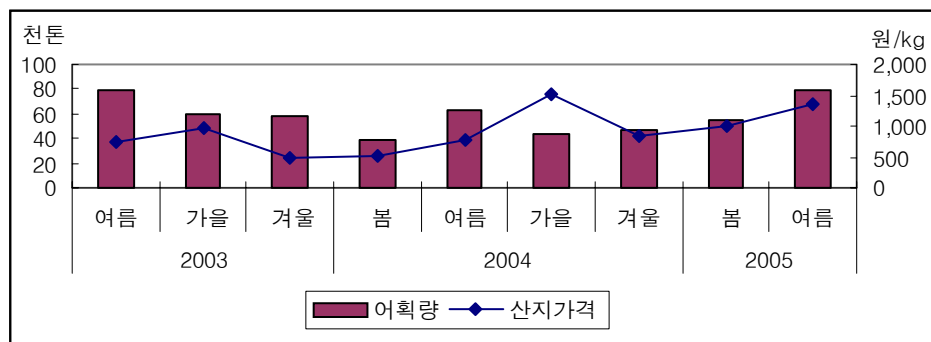
- 올 여름 냉동 고등어의 소비지가격은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 작년 가을 이후 고등어의 크기가 300~350g을 중심으로 냉동냉장창고에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500g 이상의 신선·냉장 고등어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의해 냉동 중고등어의 가격은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냉동 고등어 소비지가격은 올해 여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작년 가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 비축량이 238%나 많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3%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3) 멸치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 꾸준한 상승세

- 올 여름의 멸치 산지가격은 올 봄에 비해 약 39% 올랐으며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약 78% 상승하였음
- 이는 생산량이 올 봄에 비해 약 47% 증가하였고,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26%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봄의 재고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산지가격이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II-11〉 멸치의 어획량과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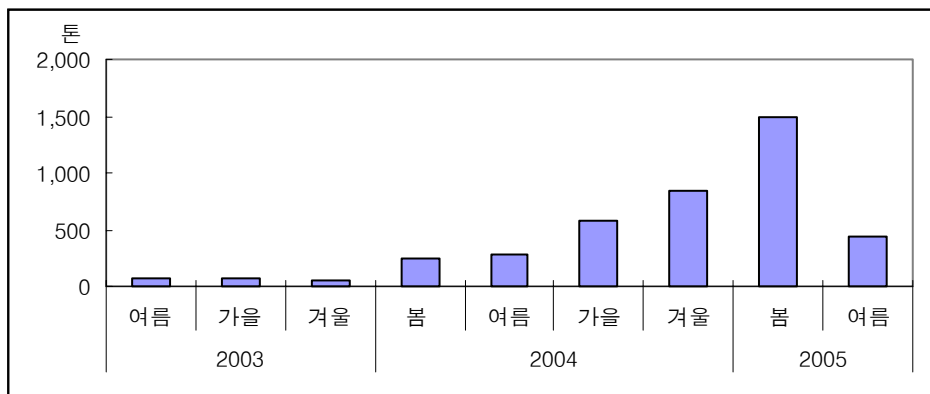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국내 어획량 증가로 수입물량 크게 감소

- 올 봄에는 2004년의 전반적인 어획부진에 의한 공급부진을 메우기 위해서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계속된 어획량 증가로 올 여름의 멸치 수입은 지난 봄에 비해 71%나 대폭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산 마른 멸치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국내산 마른 멸치에 대한 대체성이 떨어지며
 - 국내 어획량 또한 늘어남에 따라 재고량이 증가하여 당분간 수입 마른 멸치의 수입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Ⅱ-12〉 마른 멸치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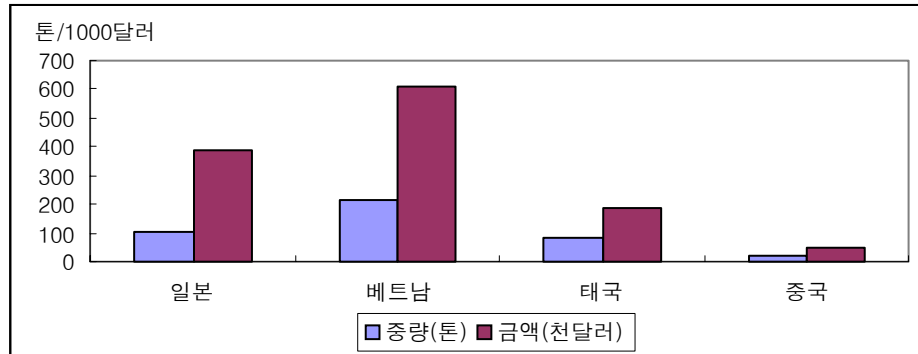


자료 : 한국 무역협회, 무역통계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

-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량과 수입액에 있어서 일본과 베트남의 비중이 매우 높음
 - 특히 올 6월~8월 멸치 수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한 반면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임
 - 멸치 건조 방법의 차이로 인해 마른 멸치의 질이 국내산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 마른멸치는 대체성도 약한 단점으로 인해 국내 어획량의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II-13〉 국가별 마른멸치 수입량 및 수입액 (2005년 6~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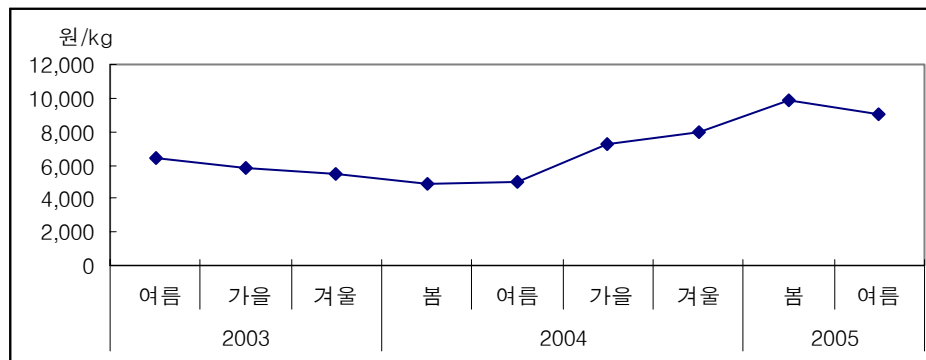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 무역협회, 무역통계

소비지가격 여전히 높은 가격대 형성

- 한편 올 여름의 마른 멸치 소비지가격은 올 봄에 비해 8%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년 여름에 비해서도 80% 상승하였음
 - 이는 작년 여름 이후 계속해서 어획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작년의 재고량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던 관계로 여전히 공급량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며
 - 비록 올 여름의 대폭적인 어획량 증가가 소폭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최근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높은 소비지가격의 추세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II-14〉 마른 멸치(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

가을 소비지가격 약보합세 전망

- 중도매인들은 올 가을의 마른 멸치 소비지가격에 대해 2005년 여름에 비해 5%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작년 가을보다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어획량 증가로 재고량은 작년 가을 수준에는 조금 모자라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고가인 세멸이 거의 없고, 주 인기 품목인 남해안 멸치 또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여 이들 제품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올 가을 이들 두 제품간의 가격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멸은 10% 이내로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나 세멸은 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재고량이 작년 가을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올 가을 멸치 중 품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5~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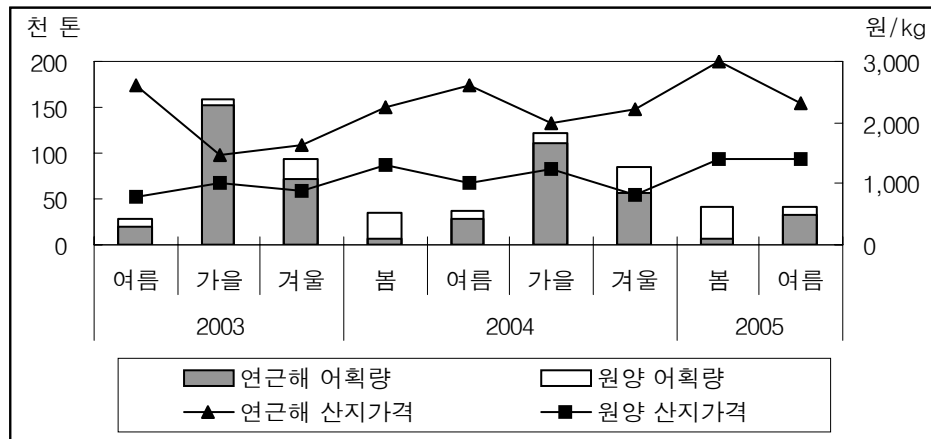
4) 오징어

올 여름 오징어 산지가격, 올 봄에 비해 크게 내려

- 올 여름의 연근해 오징어 산지가격은 작년 여름과 올해 봄에 비해 각각 11%와 22% 떨어진 2,324원/kg이었음
 - 이는 연근해 어획량이 작년 여름과 올해 봄에 비해 각각 12.6%와 405% 늘었고
 - 조업 현장에서는 오징어의 주요 어장이었던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오징어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임
- 올 여름 원양 오징어의 산지가격은 1,400원/kg으로 올해 봄과 비교해서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작년 여름과 비교해서는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어획량은 올해 여름이 10,464톤으로 올해 봄에 비해서는 약 70% 줄었고,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14% 늘어났는데, 산지가격과 어획량이 일반적인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변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작년 겨울 이후에는 원양 어획량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연근해 산지가격의 변동 추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최근 국내 오징어 공급 부족에 의해 원양 오징어 산지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고려됨

〈그림 II-15〉 오징어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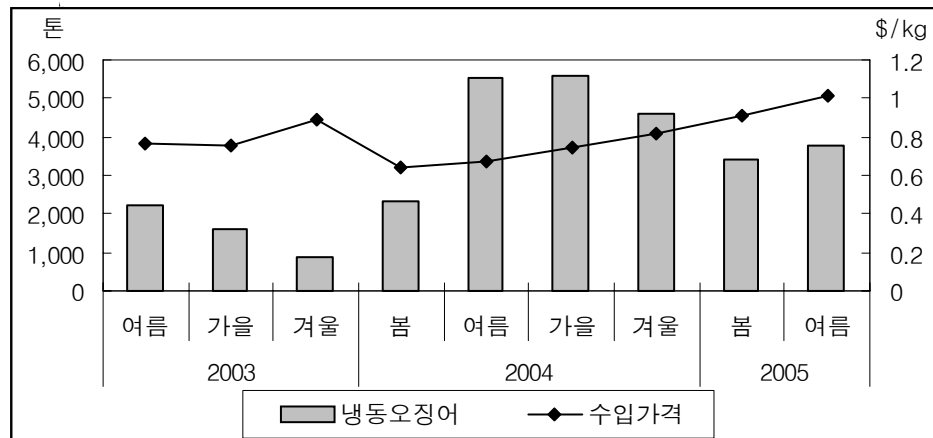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지난해 봄 이후, 수입가격 꾸준히 올라

- 올 여름 냉동 오징어의 수입량은 3,79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 줄었고, 올 봄에 비해서는 11% 늘었음
- 그러나 지난 해 봄에 떨어졌던 수입가격이 올 여름까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 이는 국제적인 오징어 수급 부족에 의해 국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16〉 냉동 오징어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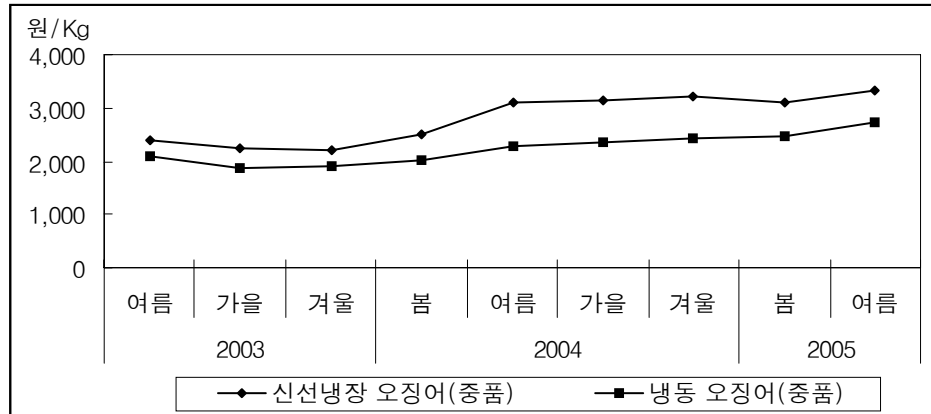
주 : 오징어 수입량은 냉동 오징어의 수입량으로 신선·냉장 오징어의 수입량은 오징어 전체 수입량의 1% 이하로 매우 적은 양임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올 여름 소비지가격, 신선·냉장 중심으로 고공행진 중

- 올해 여름의 신선·냉장 오징어 소비지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올해 봄보다는 약 8% 올라 작년 이후 소비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음
 - 냉동 오징어의 소비지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8% 올랐으며, 지난 봄에 비해서는 약 9% 올라 강보합세를 보였음
 - 이렇게 신선·냉장 및 냉동 오징어 소비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여름과 올해 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원양 냉동 오징어와 수입 냉동오징어의 공급이 부진하였으며
 - 8월말 현재 냉동 오징어 재고량은 36,574톤으로 작년 12월말보다 42%, 작년 여름보다는 15% 줄어 국내 총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임

〈그림 II-17〉 신선·냉장(중품) 및 냉동 오징어(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주 : 2005년 여름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오징어 소비지가격, 신선·냉장 및 냉동 보험세 유지할 듯

- 올해 가을 신선·냉장 오징어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우선 오징어 공급량이 늘어날 요인으로서 가을철 트롤 어업이 시작되어 어획량이 크게 늘 가능성과 어체가 커져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오징어의 성어기가 8월~10월로 가을 중반을 넘어서는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오징어 소비지가격이 공급 요인의 상충 작용으로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음
 -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약 7% 정도 오른 가격에서 거래될 것으로 나타났음
- 냉동 오징어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에 비해 약 10% 내릴 것으로 보임
 - 우선, 원양 어획량의 감소가 냉동 오징어의 가격을 크게 올려놓은 상태인데, 트롤어업의 조업이 10월부터 시작되어 어획량이 늘어나면, 선동 오징어의 공급량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 수입 품목

2005년 여름, 수산물 수입액 8% 증가

- 수산물 수입은 봄철이 지나면서 여름철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 여름의 수입은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 주요 품목 중 일부는 시중의 낮은 가격 때문에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 주요 수입 품목인 명태와 꽃게는 작년 여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는데
 - 명태는 충분한 재고물량과 국내 신선·냉장 명태의 가격 하락이 수입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됨
 - 꽃게는 국내 어획량의 증가로 수입물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조기와 쾡치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

〈표 II-3〉 2005년 여름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실적

단위 : 톤, 백만 달러, %

품목	2004년 여름		2005년 여름		증감률(%)	
	수입량 (천 톤)	수입액 (백만 달러)	수입량 (천 톤)	수입액 (백만 달러)	물량	금액
전체	293	492	282	529	-3.8	7.8
명태	40.6	36	23.9	22	-41.1	-38.9
쾡치	3.3	2	4.6	3	39.4	50.0
조기	8.8	21	10.4	24	18.2	14.3
꽃게	3.7	13	2.7	10	-27.0	-2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올 가을 수입 수산물 가격 상승하기 힘들 듯

- 2005년 가을 명태, 쾡치, 조기, 꽃게의 수입 수산물 가격은 최근 불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문제와 경기 침체로 본격적인 수산물 수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 특히 명태의 경우 최근 수요가 줄면서 냉동 명태 재고물량이 많아져 가격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선·냉장 또한 수요부족과 충분한 공급여력으로 냉동 명태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최근 계속된 수입콩치의 범람으로 국내 콩치도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가을철에도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조기는 연근해산 조기의 증가와 말라카이트그린 문제로 수입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보험세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꽃게도 최근의 경기 침체로 가격이 소폭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4〉 2005년 가을 주요 수입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2004년 가을 대비	2005년 여름 대비	
		가격방향	가격방향	가격 변화율(%)
명태	신선·냉장	↓	↑	10
	냉동	↓	▮→	-
콩치	신선·냉장	↓	↑	10
	냉동	↓	▮→	-
조기	국산	↓	↑	20
	수입산	↓	▮→	-
꽃게	산 것	↑	↓	-10
	냉동	↓	▮→	-

1) 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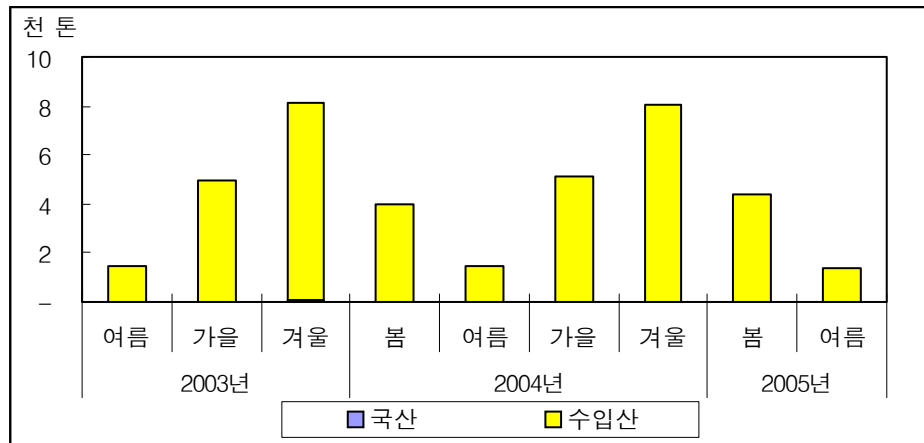
여름 명태 공급량 지속적으로 감소

- 여름은 수산물 소비가 가장 적은 달로 봄부터 시작된 공급 감소는 여름까지 이어지는데, 신선·냉장 명태는 여름철 부패문제로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 시기 공급량 또한 사계절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음

24 2005년 추계 수산 시장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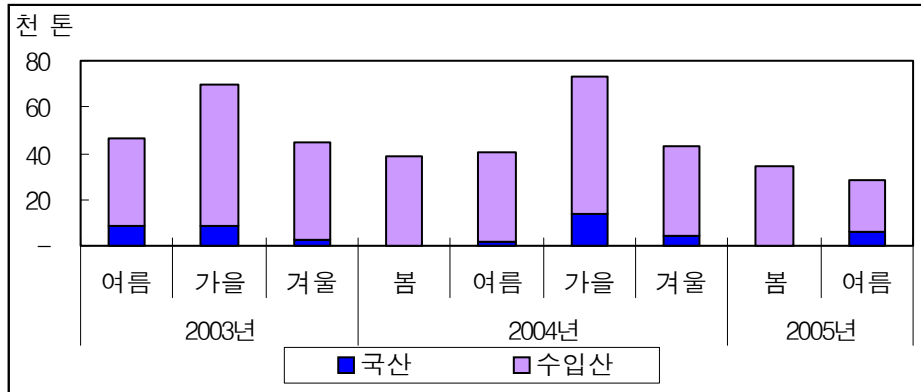
- 2005년 여름 국내 신선·냉장 명태의 공급은 산지 생산이 어느 해보다 적어 작년 여름의 33%수준에 머무르는 최악의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1톤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 신선·냉장 명태의 수입도 2003년, 2004년 여름에 비해 계속 감소하였음
 - 국내산의 경우 최근 해수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며
 - 수입산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함께 냉동명태의 충분한 재고물량과 가격침체가 신선·냉장 명태의 수입까지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됨
- 올 여름 냉동 명태의 공급은 작년 여름에 비해 29% 감소한 4만 톤 수준으로 봄 원양명태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2004년 봄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요가 없는 봄에는 아예 출어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됨

〈그림 II-18〉 신선·냉장 명태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II-19〉 냉동 명태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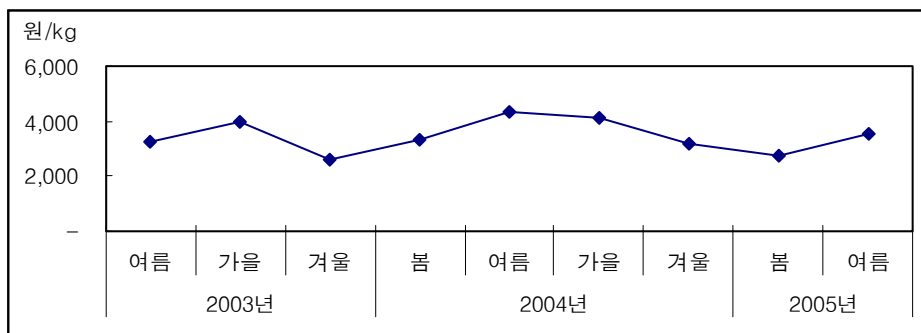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신선·냉장 명태 소비지가격 꾸준히 상승

- 2005년 여름 신선·냉장 명태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34%로 상승하였으며, 2003년 여름에 비해서는 44% 상승하였음
- 이렇게 신선·냉장 명태의 소비지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명태에 대한 계절적 수요 외에도 꾸준한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신선·냉장 명태는 주로 일본산이 대부분인데 여름철이 명태의 성장기라는 점 때문에 일본에서도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량이 한정되어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20〉 수입 신선·냉장 명태 소비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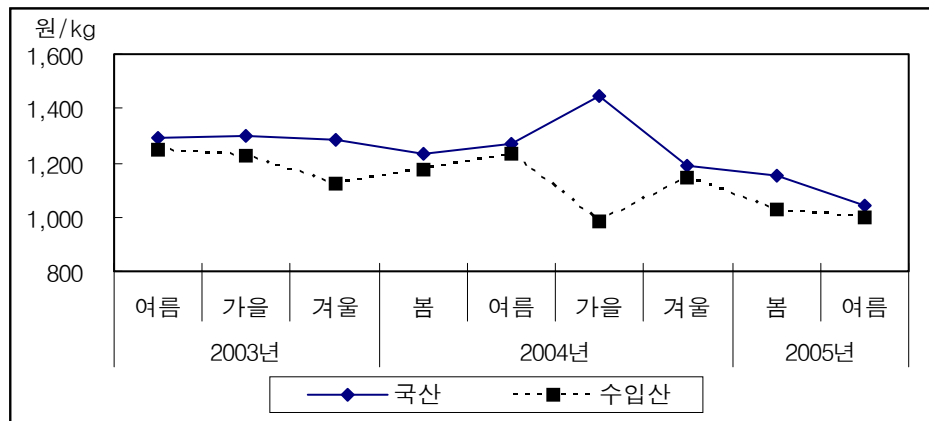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냉동 명태 소비지가격 계속 하락

- 2005년 여름 냉동 명태의 소비지가격은 2003년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실제 올해 여름 냉동 명태의 소비지 공급량도 작년 동기에 비해 42%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가격은 국산의 경우 18%, 수입산의 경우 19% 하락하였음

〈그림 II-21〉 냉동 명태의 소비지가격 추이



주 : 국산은 냉동 명태 소비지 유통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냉동(8통)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올 가을 신선·냉장 명태의 소비지가격 10% 상승할 듯

- 명태는 가을부터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선·냉장 명태의 소비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 여름에 비해 약 1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 신선·냉장 명태의 소비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을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을 철 가격 상승도 20%를 넘기는 힘들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작년 가을의 소비지가격인 kg당 4,100원까지 회복되는 것은 무리로 보이며, 4,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올 가을 냉동 명태의 소비지가격 여름과 비슷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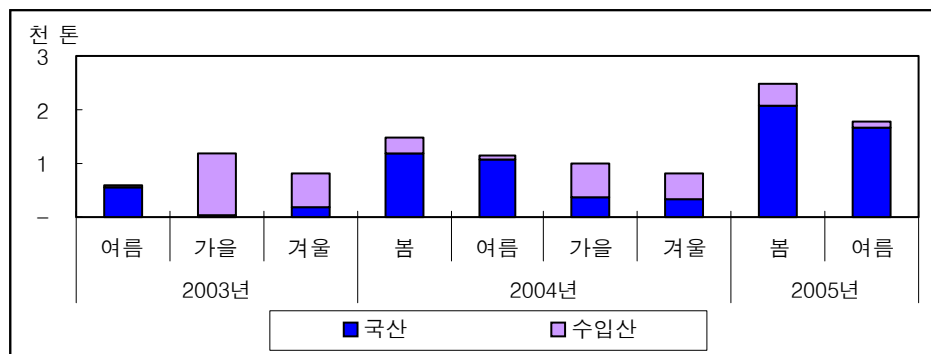
- 올 가을 냉동 명태의 소비지가격은 여름 가격에 비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 여름철 냉동 명태가격 하락 현상이 심각하여 1,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가을에 와서도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는 최근 가을이라는 계절적 수요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가을철 공급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상승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2) 콩치

국산 신선·냉장 콩치의 공급량 증가

- 2005년 여름 신선·냉장 콩치의 산지 어획량이 작년 여름에 비해 57% 정도 증가하면서 산지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음
 - 이렇게 산지어획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신선·냉장 콩치의 수입 또한 24% 증가하였음
 - 이렇게 많은 신선·냉장 콩치의 공급은 신선·냉장의 판매기간 한정과 맞물려 여름 소비지가격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22〉 신선·냉장 콩치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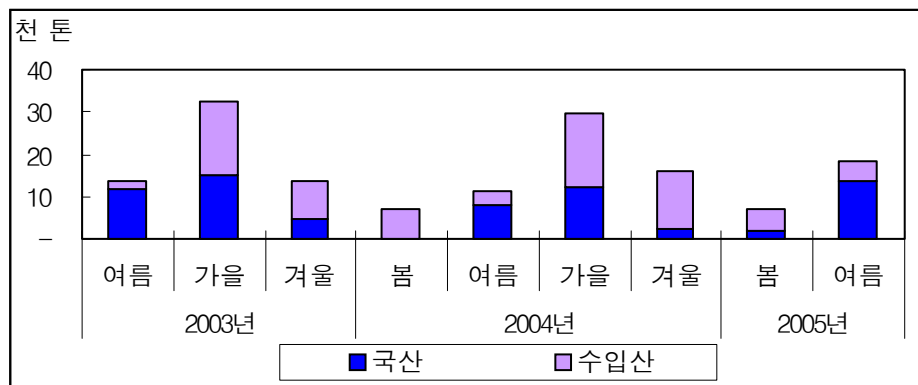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무역협회, 무역통계

수입산 냉동 쫄치의 공급량도 증가

- 2005년 여름 냉동 쫄치의 공급은 예년 여름보다 많아 쫄치 가격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할 정도였으나 큰 가격 하락은 없었음
 - 올 여름 냉동 쫄치는 국산(원양산)의 경우 작년 여름보다 71%나 더 공급되었으며 수입 냉동 쫄치는 41% 더 공급되었음
 - 냉동 쫄치는 저장성 측면에서 신선·냉장 쫄치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여름에 공급된다 할지라도 냉동·냉장 보관을 통해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함

〈그림 II-23〉 냉동 쫄치의 소비지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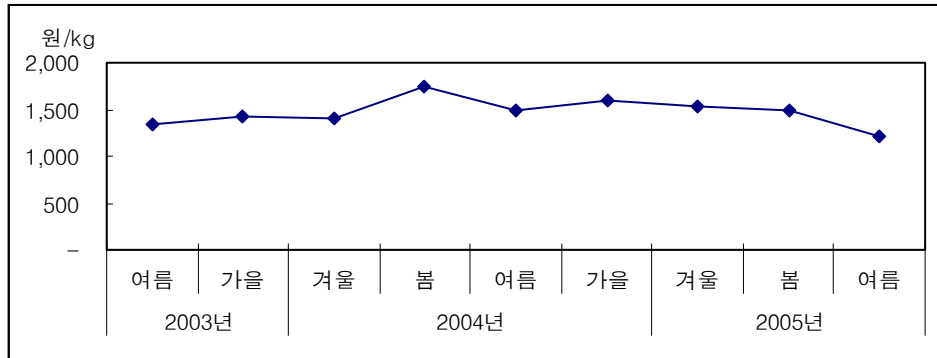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무역협회, 무역통계

신선·냉장 쫄치 소비지가격 작년 여름보다 19% 하락

- 2005년 여름 신선·냉장 쫄치의 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kg 당 19% 하락한 1,200원 대에서 거래되었음
 - 여름철 신선·냉장 쫄치의 공급이 어느 해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올해 신선·냉장 쫄치의 소비지가격은 예년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쫄치파동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을 정도인데
 - 이는 여름철 신선·냉장 및 냉동 쫄치의 공급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신선·냉장 쫄치의 비저장성으로 냉동 쫄치보다 공급과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임

〈그림 II-24〉 신선·냉장 콩치 소비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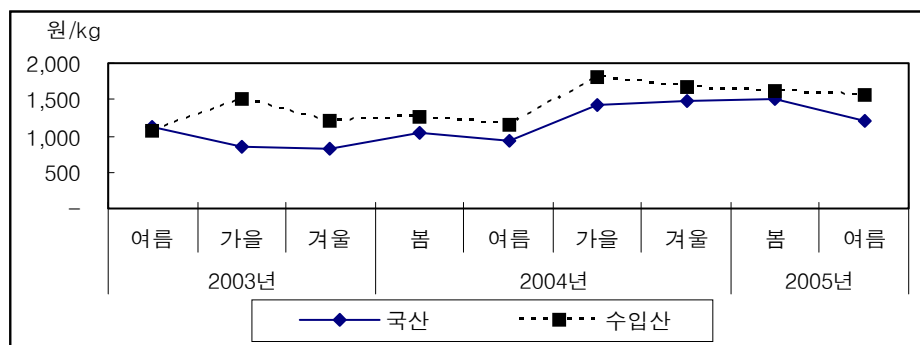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냉동 콩치의 소비지가격도 떨어져

- 올 여름 냉동 콩치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올 봄에 비해서는 보합세를 보였음
- 특히, 올 봄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의 소비지가격이 보합세를 보인 것은 실제 수입산 냉동 콩치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국산의 가격하락 폭 보다는 크지 않았음
- 올해에는 대형할인마트를 중심으로 과잉 공급된 냉동 콩치에 대한 판촉 할인행사가 많아 예상외의 수요가 있었음

〈그림 II-25〉 냉동 콩치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신선·냉장 꾀치의 소비지가격, 예년 수준회복 어려워

- 2005년 여름 신선·냉장 꾀치 소비지가격은 예년 여름과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냈으나, 올 가을에도 가격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가을에는 꾀치의 육질도 더 단단해져 상품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계절적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바 10% 정도 가격회복이 기대되기는 하나
 - 냉동 꾀치의 재고가 많아 예년 가을 신선·냉장 꾀치의 가격대인 kg당 1,500원 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올 가을 냉동 꾀치의 소비지가격 여름과 비슷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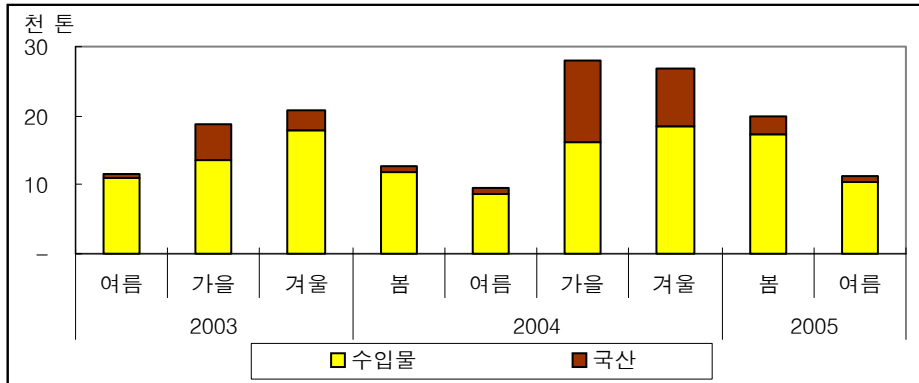
- 올 여름 냉동 꾀치가격은 일반적인 여름 가격 하향세를 깨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는 바 가을철에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올 가을 냉동 꾀치의 소비지가격은 계절적인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공급 물량 중에서 재고로 돌려진 양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 본격적인 냉동 꾀치 공급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여름철 소비지가격과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3) 조기류

국산 조기 공급량 작년 여름에 비해 44% 늘어

- 2005년 여름 조기류의 공급량은 올 봄보다 43% 줄었으나 작년 여름보다는 20% 늘었음
 - 국산 조기류의 공급량은 작년 여름보다 44%나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량의 9%에 불과하였음
 -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수입조기의 공급량은 작년 여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26〉 조기류의 공급원별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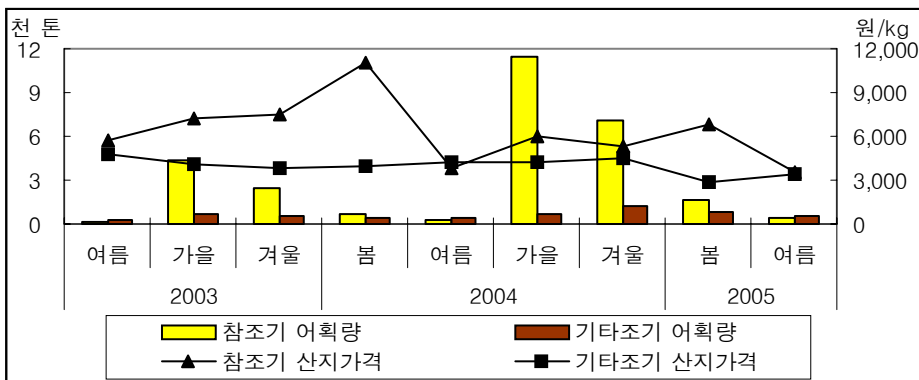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조기 산지가격 작년 여름에 비해 8% 내림

- 올 여름 참조기의 산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8% 하락해 예년수준보다 낮았는데, 이는 참조기의 어획량이 작년여름보다 10% 증가하였기 때문임
 - 올 봄에 비해서 참조기의 어획량은 78% 줄었고, 산지가격은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타조기의 산지가격은 작년 여름보다 20% 하락하였는데
 - 이는 어획량이 작년여름에 비해 74%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II-27〉 연근해산 조기류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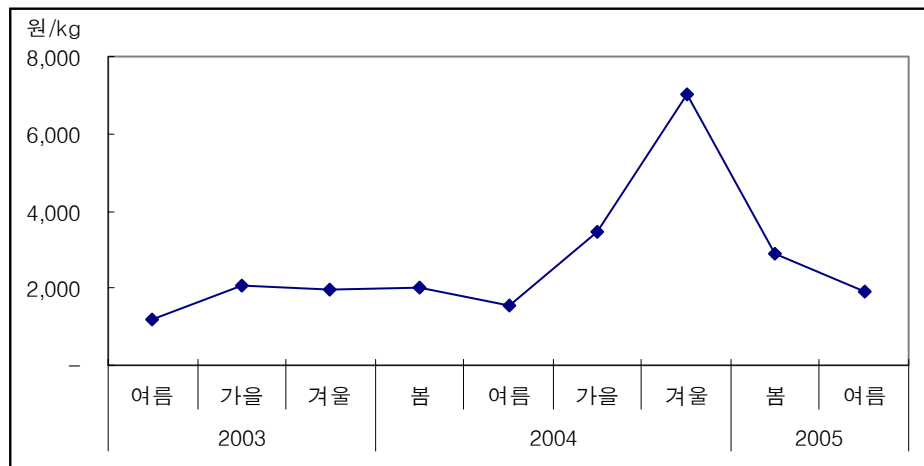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 지속적인 하락세

- 2005년 여름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24% 상승하였으나, 올 봄에 비해서는 35%나 하락하였음
- 이는 여름철 계절적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데다 품질이 떨어진 기타 조기류의 공급이 참조기보다 많았기 때문임

〈그림 II-28〉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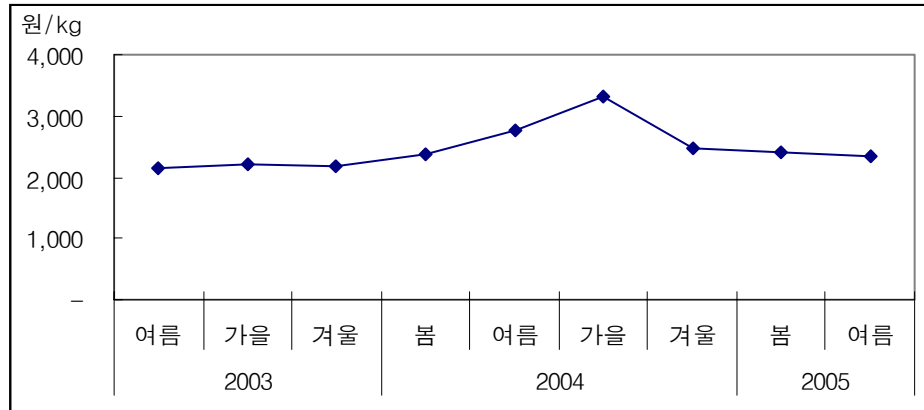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수입 조기의 소비지가격 약보합세로 나타나

- 수입조기의 소비지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여름에 비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대부분이 중국산인 수입 조기의 공급이 안정적인 한편 작년 여름보다 공급물량이 늘었기 때문임

〈그림 II-29〉 수입 조기류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올 가을, 국산은 20% 오르고 수입 조기는 강보합세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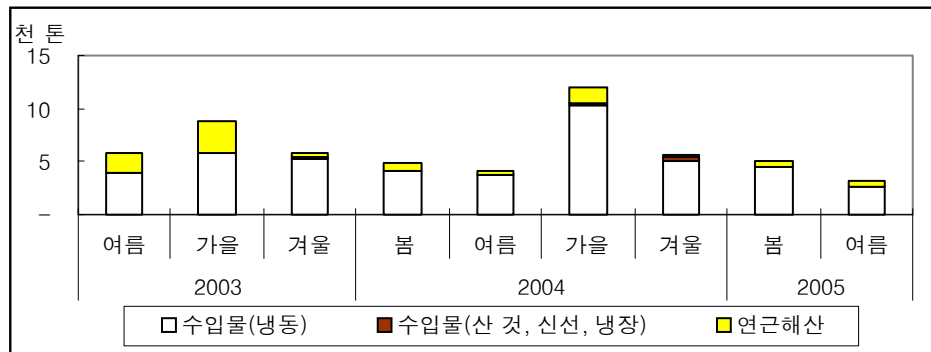
- 소비자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고려하면 올 가을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에 비해 2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됨
 - 가을에 어획된 연근해산 조기는 여름에 어획된 것보다 품질이 좋아 전반적으로 소비지가격이 오를 것이며
 - 또한 중국산 수산물물의 말라카이트그린 문제로 소비자들이 국산 조기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한편 국산 조기류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가을에 비해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 조기는 연근해산 조기의 증가와 말라카이트그린 문제로 수입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
 - 올 여름의 소비지가격에 비해 가을에는 강보합세로 나타날 것이고 작년 가을보다는 20%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4) 꽃게

꽃게 공급량 작년 여름보다 20% 감소

- 2005년 여름에 꽃게의 전체 공급량은 3,264톤으로 작년 여름보다 20% 줄었는데
 - 이는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한 수입 냉동 꽃게가 작년여름보다 28% 감소되었기 때문임
 - 한편 연근해산 꽃게의 공급량은 작년 여름보다 83%, 올 봄보다는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30〉 꽃게의 공급원별 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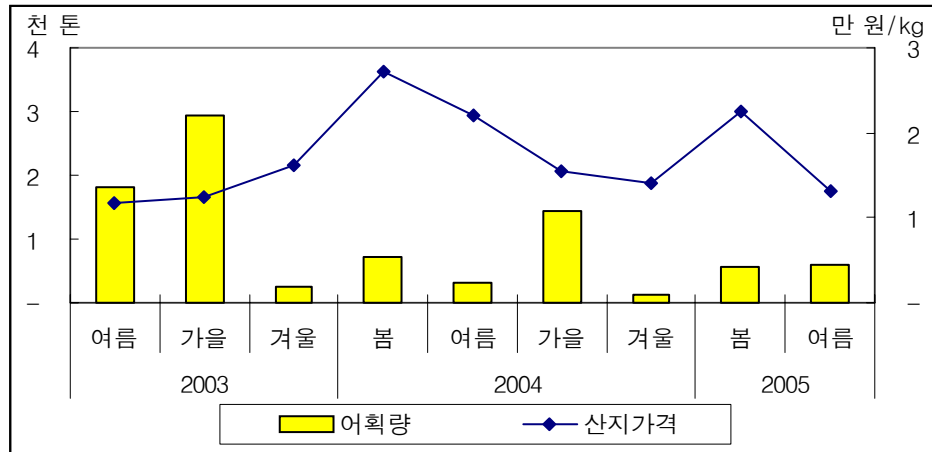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산지가격 작년 여름보다 4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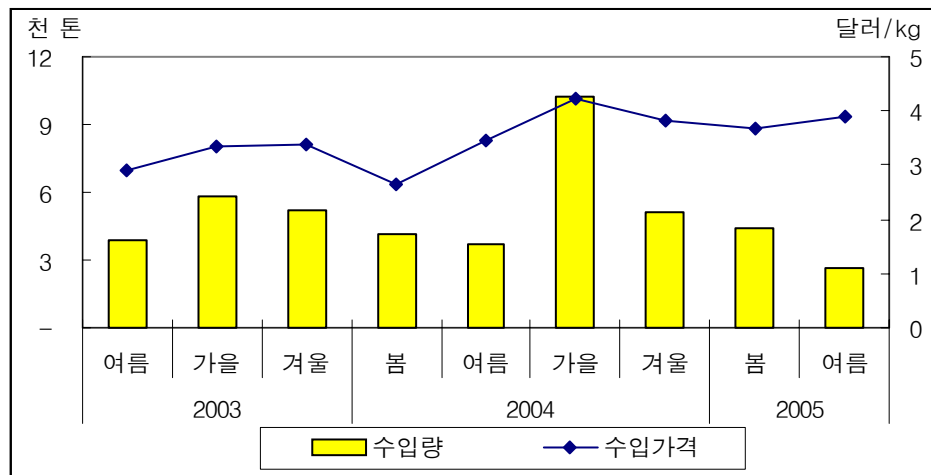
- 2005년 여름에 연근해산 꽃게의 산지가격은 작년 여름보다 40% 하락하였는데
 - 이는 여름에 어획된 꽃게의 품질이 떨어져 값 싼 꽃게의 어획량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냉동 꽃게의 수입가격은 작년 여름보다 13%, 올 봄보다는 6% 상승하였음
 - 수입 활 꽃게는 연근해산의 증가로 수입량이 작년여름보다 29% 줄었고, 수입가격은 19% 상승하였음

〈그림 II-31〉 연근해산 꽃게의 어획량 및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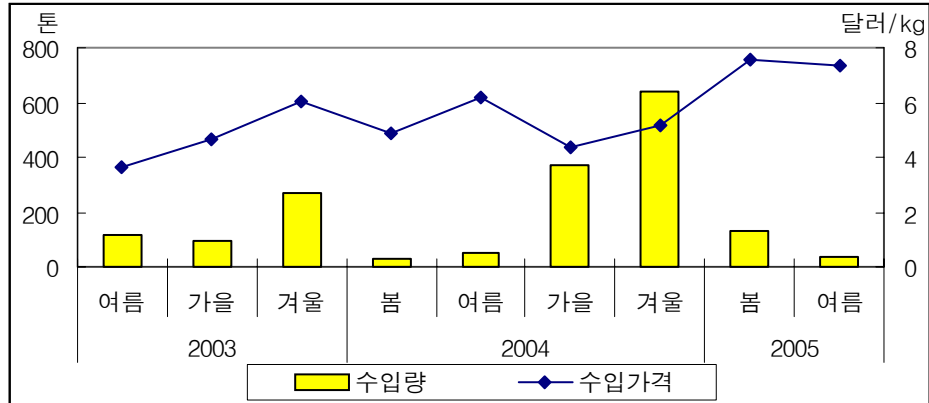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그림 II-32〉 냉동 꽃게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II-33〉 활 꽃게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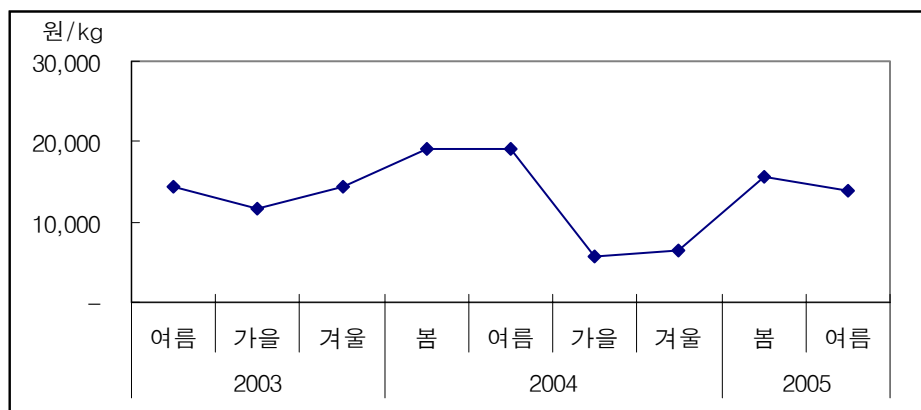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검사통계자료

활 꽃게 소비지가격 소폭 하락

- 2005년 여름 활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27%, 올 봄에 비해 11% 하락하였음
- 이는 연근해산 꽃게의 어획량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연근해산 활 꽃게의 공급량은 늘었기 때문임

〈그림 II-34〉 활 꽃게의 소비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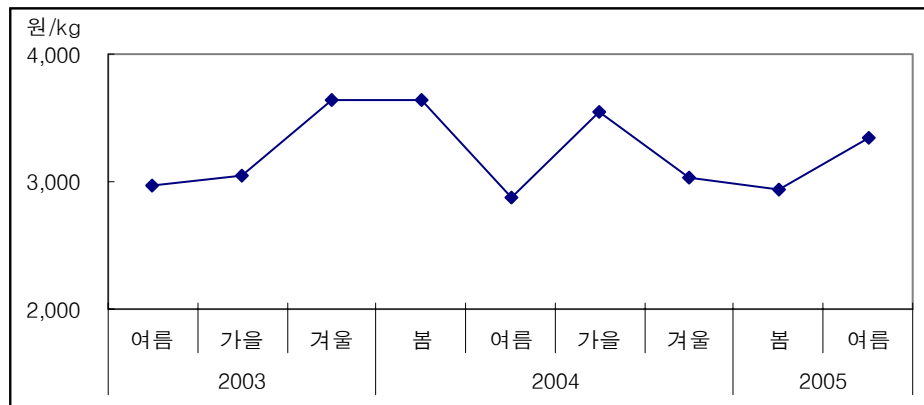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 크게 올라

- 2005년 여름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작년 여름에 비해 16.5%, 올 봄에 비해서는 14% 상승하였음
 - 이는 연근해산 꽃게의 증가로 냉동 꽃게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 여름에 유통되는 꽃게는 대부분이 3월에 어획된 것으로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II-35〉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강동수산(주), 내부자료

올 가을, 활 꽃게는 하락하고 냉동 꽃게는 비슷할 듯

- 9월부터 연근해산 꽃게의 어획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활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도매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지가격조사에 따르면 활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에 비해 10% 정도 하락할 것이나 작년 가을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통상 가을에 보편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냉동 꽃게의 소비지가격은 올 여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 가을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 양식 품목

양식어업 생산량 크게 늘어

- 2005년 여름 전체 양식어업 생산량은 전년 여름에 비해 1.3배가량 늘어나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음
 - 이는 어류의 생산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고 패류도 소폭 늘어난 것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물량 비중이 큰 해조류의 생산량이 2.3배나 증가한 것이 주효하였음⁵⁾
- 생산량 급증에 힘입어 양식어업 생산액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났으나 물량 증가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어류와 패류는 생산량 및 생산액의 증가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산지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 해조류는 그 차이가 커서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표 II-5〉 2005년 여름 양식어업 생산 실적

	2004년 여름		2005년 여름		증감률(%)	
	생산량(톤)	생산액(억 원)	생산량(톤)	생산액(억 원)	물량	금액
전체	57,978	1,772	134,671	2,273	132.3	28.3
어류	12,180	1,184	16,821	1,575	38.1	33.0
패류	13,854	372	15,339	389	10.7	4.6
해조류	29,699	170	99,431	253	234.8	48.8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넙치·조피볼락·돔류 모두 증가

- 양식 어류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넙치와 조피볼락은 생산량이 각각 29%, 21% 늘어났음

5)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는 다시마·톳의 생산 통계 체제 개편으로 시계열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임

- 넙치는 예년에 비해 입식 물량이 많았던 데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 조피볼락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전년 여름 생산이 감소했다가 올해 2003년 여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이밖에 참돔이 전년 여름의 두 배로, 감성돔과 기타돔류가 세 배로 생산이 늘어나는 등 돔류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졌음
- 산지가격은 예년보다 공급이 크게 늘어난 넙치가 14% 하락하고 감성돔·기타돔류도 소폭 내린 반면, 조피볼락과 참돔은 각각 7%, 8% 올랐음

바지락 생산 감소, 홍합·전복은 크게 늘어

- 대표적인 양식 패류인 굴이 계절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굴 이외의 주요 품목인 바지락과 홍합 생산량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음
 - 바지락은 전년 여름에 비해 37% 감소한 5,400톤이 생산된 것과 대조적으로 홍합은 1.6배 늘어난 7,900톤이 생산되었음
 - 그리고 절대적인 물량은 적지만 고가의 패류인 전복도 전년 여름 대비 생산이 86% 늘었음
- 이에 따라 바지락의 산지가격은 소폭 올랐으나 홍합과 전복은 각각 41%, 12% 내렸음

통계 개편 후 다시마·툇 생산 급증 현상 나타나

- 양식 해조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김과 미역이 계절적으로 생산되지 않았으나 다시마와 툇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2005년 여름 해조류 생산에 이상 급증 현상이 나타났음
 - 다시마는 전년 여름에 비해 3배, 툇은 1.4배 늘어났는데
 - 이는 2005년 5월부터 비계통 표본에 의존한 다시마·툇의 생산량 조사가 표본·전수 병행 조사 통계로 체제가 바뀌에 따라 이 시점을 전후로 시계열 자료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임

가을철 가격, 어류 하락하고 김 소폭 상승

- 2005년 가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소비지가격은 넙치·조피볼락 등 어류는 약세를 보이고, 김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굴은 전년 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넙치·조피볼락은 공급 여건이 충분한 상황에서 10월 초 터져나온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의 영향권에 들어 예년에 비해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가을에 새로이 출하되는 굴은 지난해와 생산량 규모가 비슷하고 수요측면도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김은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와 수출은 안정적인 것으로 관측됨

〈표 II-6〉 2005년 가을 주요 양식 품목의 소비지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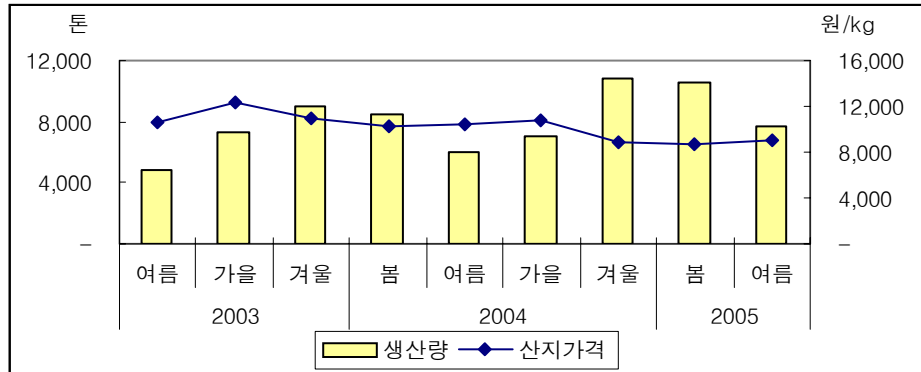
	2004년 가을 대비	2005년 여름 대비	
	변동 방향	변동 방향	가격 변화율(%)
넙치(활어)	↓	↓	-5~-10
조피볼락(활어)	↓	↓	-5~-10
굴(신선·냉장)	▮→	▮→	-
김(건조)	↑	↑	5

1) 넙치

생산량 증가세 지속되면서 전년 비해 산지가격 하락

- 2005년 여름 넙치의 산지가격은 봄에 비해 3% 올랐으나 전년 여름에 비해서는 14% 내렸음
 - 이는 비수기인 여름에 생산량이 27% 줄었지만 전년 여름보다는 여전히 29% 많은 수준이어서 출하 물량이 예년보다 큰 규모를 유지한 반면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전반적으로 많았기 때문임

〈그림 II-36〉 양식 넙치의 생산량과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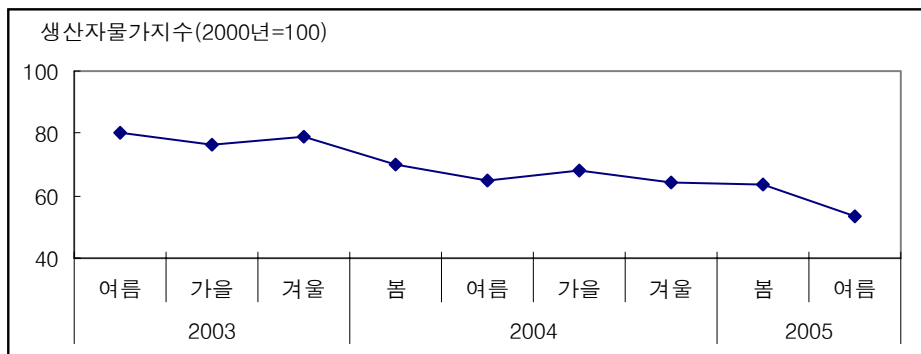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수요 비해 공급 많아 소비지가격 하락세 지속

- 소비지에서도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4년 가을 이후 시작된 가격하락세가 2005년 여름까지 이어졌음
 -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으로 산정되는 넙치 생산자물가지수는 봄에 비해 16%, 전년 여름에 비해 17% 하락했음
- 이와 달리 노량진 수산시장의 넙치(활어) 가격은 봄에 비해 7%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3% 낮은 시세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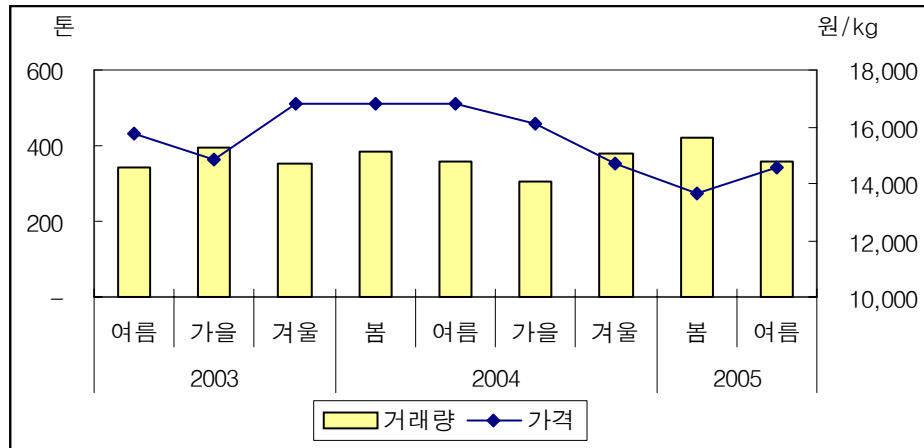
〈그림 II-37〉 넙치의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주 : 소비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I-38〉 넙치(활어)의 노랑진수산물시장 거래량 및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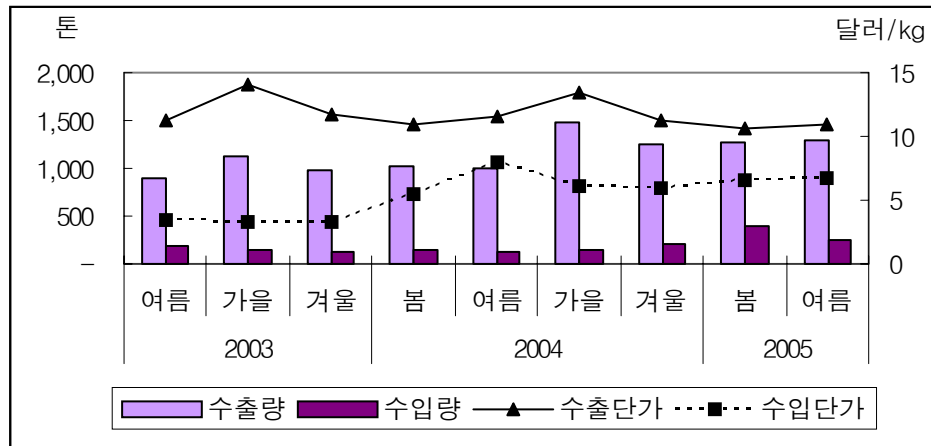


자료 : 노랑진 수산물시장, 수산물가격정보

수출 호조 속 단가 하락세 주춤

- 생산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05년 여름의 넙치(활어)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 갔음
 - 전체 생산량이 계절적인 내수 위축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수출량은 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년 여름 대비 증가율도 생산량 증가율과 같은 29%로 생산량에 정확히 비례하여 늘어났음
- 수출단가는 봄에 비해 소폭 오르면서 하락세에서 반전에 성공했으나
 - 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전년 여름에 비해서는 6%가량 낮은 시세를 보였음
- 한편 봄에 크게 늘어난 도다리(활어)가 여름에도 수입이 활발하여 전년 여름의 2배 가까운 양으로 늘었음
 - 물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공급 과잉 양상을 보이는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소비지 가격 하락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림 II-39〉 넙치(활어)의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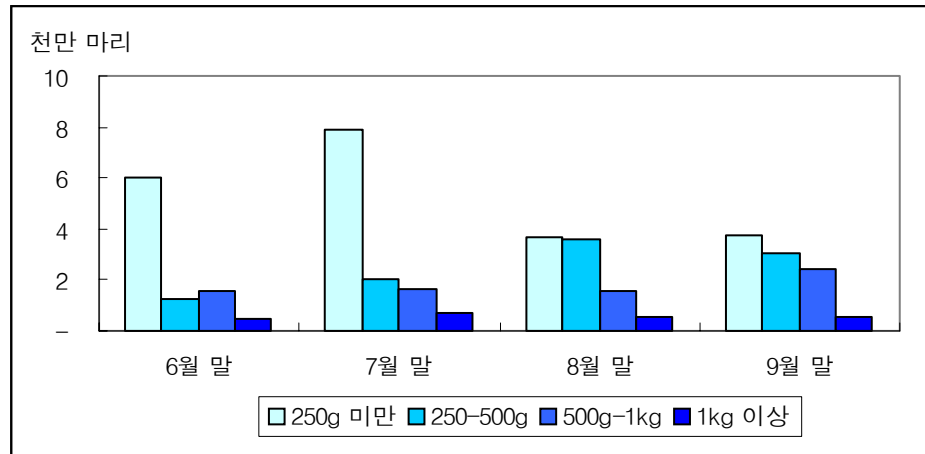


주 : 2005년 봄·여름에 수입된 넙치류(활어)에는 도다리가 상당수 포함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5~10% 하락 예상

- 2005년 가을 넙치의 산지·소비지 가격은 10월 초에 불거진 이른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의 영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여름에 비해 5~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전년 가을에 비해서는 산지·소비지 가격이 20~30%가량 떨어져 근년 들어 최저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본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추정한 양성 물량 추이를 볼 때 여름 이후 늘어나는 수요를 예상한 출하 대기물량이 충분한 상황인 데다
 -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 겹치면서 양식 어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그러나 내수면 양식어업이 파동의 진원지라 해면 양식어업은 그 파장이 덜 미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40〉 2005년 6~9월 넙치의 양성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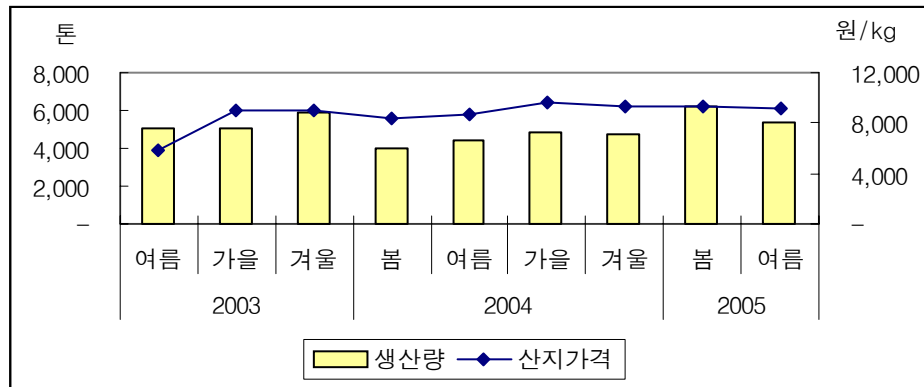
주 : 9월 말 현재 곧 출하가 가능한 500g~1kg 양성물량이 늘어나고 있음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조피볼락

생산량 소폭 늘고 산지가격은 비슷

- 2005년 여름 조피볼락의 산지가격은 봄에 비해서는 2% 내렸으나 전년 여름에 비해서는 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 2004년 가을에 큰 폭의 상승이 있던 후 비슷한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음
- 생산량은 계절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봄에 비해 14% 줄었으나 전년 여름에 견주어서는 21% 늘었음
 - 이는 2003년 가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2004년 생산량이 급감했다가 올해 2003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것임

〈그림 II-41〉 양식 조피볼락의 생산량과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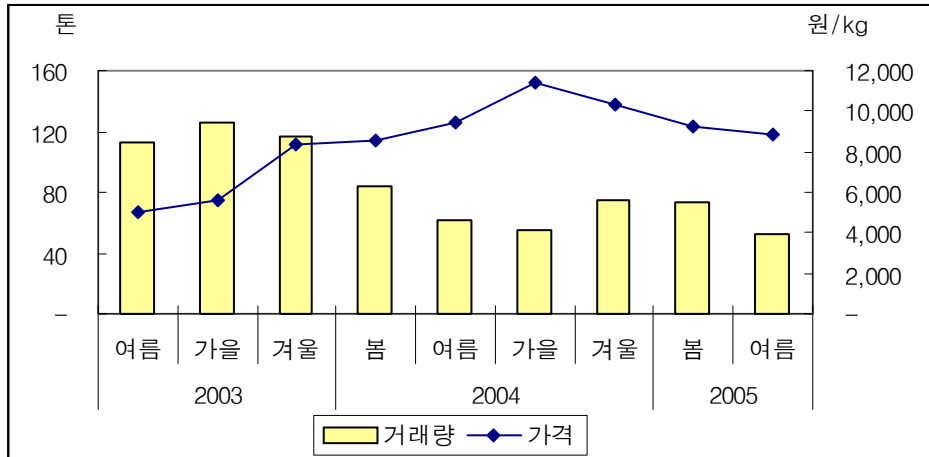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노량진수산시장 반입량 줄고 가격하락세 지속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기준으로 한 대도시 소비지에서는 여름철 수요 감소에 따라 시장 반입량이 봄에 비해 줄었으나 그 감소 폭이 28%로 산지 출하량보다 컸고
 - 전년 여름에 비해서도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출하량이 늘어난 산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⁶⁾
 -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조피볼락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비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세도 산지와는 달리 봄에 비해 5%, 전년 여름에 비해 6%가량 내리면서 2004년 가을 이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음
 -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품질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팔리지 못한 상품이 도매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2005년 여름 조피볼락을 포함한 볼락류의 수입량은 봄보다는 다소 적었고 전년 여름보다는 약간 많았으나 국내 유통량에 비해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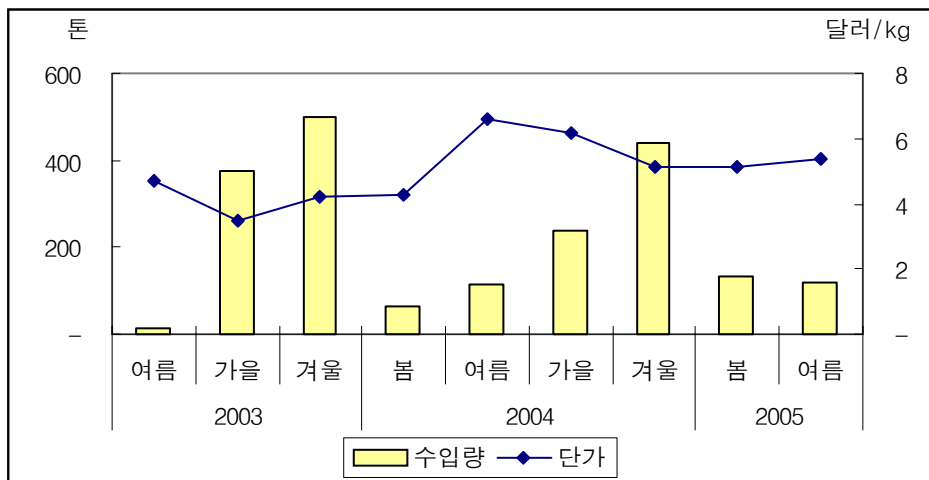
6) 조피볼락의 소비지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통계가 없는 까닭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표 가격으로 삼았으나 이것만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림 II-42〉 조피볼락(활어)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가격정보

〈그림 II-43〉 볼락류(활어)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5~10% 하락 예상

- 조피볼락도 넙치와 같이 2005년 가을 산지·소비지 가격이 여름에 비해 5~10% 하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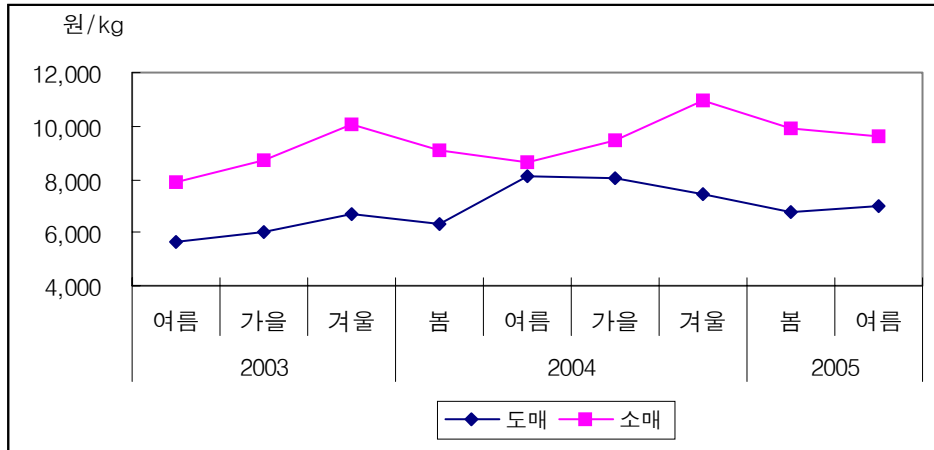
- 전년 가을과 비교하면 산지가격은 10~15%,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대표되는 소비지가격은 27~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조피볼락의 시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량으로 입식된 치어가 올해 하반기 수요에 맞추어 출하를 대기하고 있어 물량이 풍부한 반면,
 - 수요 면에서는 양식 어류 전반에 걸쳐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임

3) 굴

비수기 도매가격은 상승, 소매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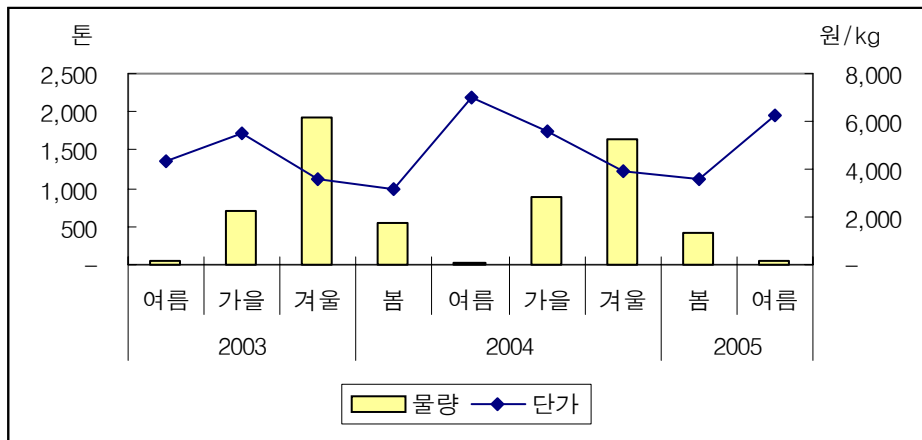
- 산지 생산이 거의 없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부진한 가운데 2005년 여름 굴의 소비지가격은 상(上)품을 기준으로 볼 때 상반된 흐름을 보였음
- 도매가격은 봄에 비해 3% 남짓 올랐는데 이는 품질에 따라 시세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上)품은 더 오른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임
 - 전년 여름에 비해 도매가격은 14% 정도 떨어졌으나 2003년 여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음
 -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도 여름철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였음
- 이와 달리 굴 상(上)품의 소매가격은 봄에 비해 3% 정도 내렸으나 전년 여름에 견줘 12%가량 올랐음
 - 이에 따라 상(上)품만을 놓고 볼 때 2004년 여름에 크게 좁혀졌던 도·소매 가격차가 이듬해 다시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그림 II-44〉 굴(상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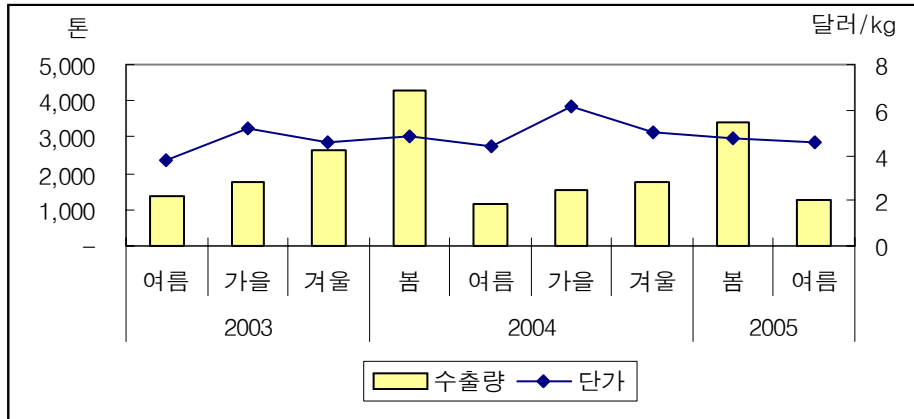
〈그림 II-45〉 굴의 노랑진수산시장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자료 : 노랑진 수산시장, 수산가격정보

- 한편 2005년 여름 신선·냉장 및 냉동 굴의 수출은 계절적으로 신선·냉장품의 수출이 거의 중단되면서 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 여름에 비해 물량으로는 7%, 금액으로는 10% 늘었음

〈그림 II-46〉 굴(신선·냉장, 냉동)의 수출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작황 전년 수준 예상, 소비지가격도 비슷할 듯

- 2005년 가을 양식 굴의 시세는 전년 가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면에서 수하식 굴의 전체 시설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고 채묘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 10월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는 2006년산 굴의 작황이 전년 수준이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 수요 면에서는 가을에 수출이 많지 않은 데다 11월 이후 계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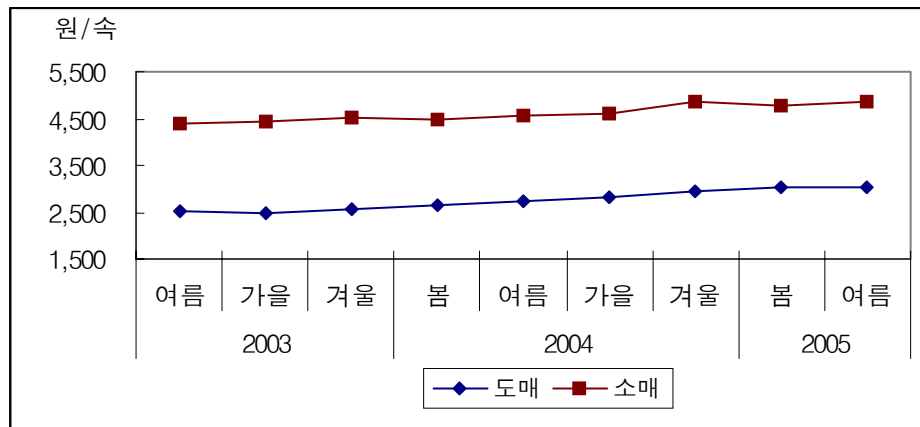
4) 김

공급 감소로 소비지가격 오름세 이어가

-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고 소비 수요도 감소한 가운데 2005년 여름 김의 소비지가격은 봄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전년 여름에 비해서는 도매가격이 11%, 소매가격이 7%가량 올랐음
 -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계절과는 상관없이 2003년부터 꽤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

- 이는 김 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으로 최근 들어 시설이 축소되면서 생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소비의 감소세가 완만하고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등 공급에 비해 수요는 안정적이기 때문임
- 본원의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 축소에 따라 김 재고량도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적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II-47〉 마른 김(중품)의 소비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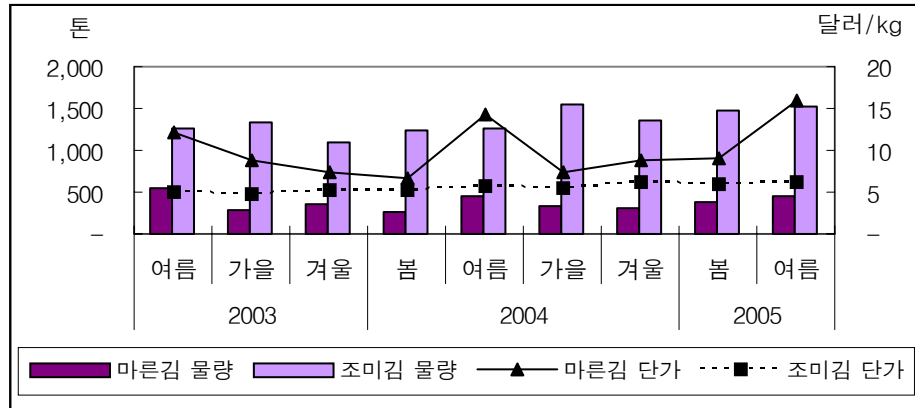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김 수출 증가세 지속

- 김의 주력 수출품인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출 동향으로 볼 때 2005년 여름 마른 김의 수출량은 전년 여름과 거의 같았고, 조미 김은 19% 증가했음
 - 수출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년 여름 대비 수출액 면에서는 마른 김이 13%, 조미 김이 8% 늘어나 근년 들어 가장 많았음
- 그런데 수출되는 김의 물량이 전체 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었어서 수출 증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그림 II-48〉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출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소비지가격 5% 이내로 상승 전망

- 2005년 가을 김의 소비지가격은 최근 2년간의 추세를 유지하여 여름에 비해 5% 이내에서, 전년 가을에 견줘서는 10%가량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본원의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06년산 김의 시설채수가 전년 대비 4.6% 감소하여 김 생산량이 이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재고량도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도 가격이 완만한 오르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Ⅲ. 종합평가 및 시사점

수산물의 이용·배분의 다변화·다양화 필요

- 올 여름 수산물 공급은 연근해 어획량의 증가로 인해 호조를 보였으나, 일부 어종은 소비지가격이 급락하여 유통업자들이 판매에 곤혹을 치르는 등 생산 호조가 반드시 수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음
 - 문제는 최근의 공급 호조로 인한 총 생산량이 과거 국내 생산인 340만 톤에 육박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배분(Distribution)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임
 - 식품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식 문화가 다양화·다변화하고 있는 등 ‘풍요로운 식 문화’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 수산물의 이용·배분에서 다양화·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시기임을 업계는 인식해야 함

TAC 기준 설정, 유통·소비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 TAC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관리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 공급 과잉 사태를 빚은 고등어도 TAC의 대상 어종에 포함되어 있음
 - 고등어의 어획량이 TAC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획 증가로 유통·소비 측면에서 고등어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물론 TAC 설정 시, ABC 분석을 토대로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TAC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은 TAC가 단순히 과학적 분석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고등어 공급 과잉 사태와 같이 TAC 내 어종의 공급 과잉 사태를 거울삼아 보면 유통·소비 부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은 공급 과잉 등의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서는

TAC 설정 시의 협의 과정에서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TAC가 수산업 전반의 자원관리 제도로써 뿌리내릴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수산물 공급·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러시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배정물량 축소 검토 필요

-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냉동 명태의 시장 공급량이 예년보다 많아 가을철 명태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 냉동 명태 가격의 지나친 가격 하락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가상승 문제와 관련하여 명태조업을 주로하는 북양트러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매년 늘고 있는 냉동 명태의 수입물량을 고려할 때 러시아 정부와의 합작투자자에 의한 수입이 소비지시장의 냉동 명태가격을 1,000원 대에 묶어두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로서는 정부가 러시아 합작법인의 관세감면 배정 물량에 대해서 합작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거의 모두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 이것이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입물량 과다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부는 냉동 명태가격 안정을 위하여 냉동 명태 수입물량을 적정하게 조절할 방법으로 관세감면 배정물량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잉 공급을 통한 과도한 소비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으나 냉동 명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원양업계와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재발 방지에 노력

- 중국산 양식 뱀장어에서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 그린에 국내 일부 내수면 어류

양식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수면뿐만 아니라 해면까지 양식 어류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넙치의 생산량이 근년 들어 가장 많고, 조피볼락의 생산도 태풍 ‘매미’에서 완전히 회복된 시점이라 어류 양식업계가 내수 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당장은 정부가 다른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 파동의 불뚝이 다른 수산물에 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겠으나

- 근본적으로는 양식어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어업인들에게 그 사용법을 주지시키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양식어업도 유기농업처럼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고품질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크게 감소한 굴 수출 늘리는 대책 필요

○ 올해 들어 8월까지 굴 수출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산 굴 생산이 전년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굴 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따라서 일본·미국 등 기존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수출이 부진한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다른 시장으로도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특히 미국은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가면서 자국 굴의 35%가 생산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의 굴 양식시설이 파괴되어 이를 온전히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현재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굴도 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 향후 미국 시장의 공급 부족을 예상한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05년 추계 수산물 가격 전망 조사표

◆ 응답자

이 름	
소속 도매시장	
상 호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

◆ 취급 수산물의 가격 전망

1. 2005년 여름(2005년 6~8월)에 비해 2005년 가을(2005년 9~11월)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오른다 ② 내린다 ③ 비슷하다

2. 2005년 여름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할 때 2005년 가을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 2004년 가을(2004년 9~11월)에 비해서는 2005년 가을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오른다 ② 내린다 ③ 비슷하다

4. 위와 같이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